



경주 동해안 해맞이 인파
 2020년 경자년(庚子年) 첫날인 1일 신라 천년고도를 지켜온 강한 기운이 서려있는 경주 동해바다에는 붉게 떠오른 새해 일출을 보며 소망을 비는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삼국통일의 정기와 죽어서까지 해룡이 되어 나라를 지키려 한 문무대왕의 비장한 각오가 느껴지는 양복면 봉길해변의 문무대왕암에는 새해 새 기운을 받으려는 3만여 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배곧지구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역 선정

시흥, 수도권내 유일... 육해공 무인이동체 미래 신산업 육성 탄력

시흥시가 수도권 내 유일하게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역에 선정됐다.
 예비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최대규모의 도시개발사업자인 배곧지구 내 서울대학교시흥스마트캠퍼스 부지 및 연구R&D부지로, 0.88㎢(약26만6천평) 규모다. 경제자유구역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증대되고 있는 기업의 국제경연활동에 경제활동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록 하는 특별 경제구역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하며,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세제 감면이나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일찍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왕동 일원의 정왕지구와 배곧동 일원의 배곧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 왔다. 지난 9월 해당지역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으로 예비지정 신청한 후

현장실사 및 평가 등을 거쳤고,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최한 제114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통해 수도권내에서 유일하게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는 글로벌 성장거점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산업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임병택 시흥시장의 시정기조 아래 시흥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산업부는 내년 6월경 경제자유

구역을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배곧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되면 산·학 연계 클러스터의 기반 아래 육·해·공 무인이동체의 원천기술 개발과 실험·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조성하여 수도권 서해안인 글로벌 미래지식산업의 메카로서 첨단성장산업의 국제적 협력 거점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의 이번 배곧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은 수도권 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이라는데 큰 의

미가 있다”며 “시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는 인근 지역과의 경쟁이 아닌 균형발전과 상생의 의미”라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 산업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내년 6월(예정) 산업부에서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공식 확정되고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완료될 경우 2030년까지 생산유발효과 5,28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9,662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1만5천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도영 기자

김포 학운6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김포시는 양촌읍 학운리 일대에 조성 중인 학운6 일반산업단지가 지난 24일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됐다고 밝혔다.
 김포 학운6 일반산업단지는 당초 계획 보다 37,615㎡ 증가된 565,177㎡의 사업면적에 총 사업비 2,606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산업단지 조성 완료 후 2,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변경 승인 사항은 인접지역 추가 편입을 통해 학운6 일반산업단지의 사업구역이 일부 확장되고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기존 14개 유치업종에서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

업을 추가해 15개 업종의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와 경기도 산업정책과 등 관련 기관들의 신속한 사전협의로 학운6 일반산업단지 업체들의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이며,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족도시로서 발돋움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운6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이번 변경승인에 따라 2020년 1월에 추가 편입 부지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21년 상반기에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심택 기자

수원 화서역 일대에 행복주택·창업시설 짓는다...市·LH·(주)KT&G 공동추진

2021년 착공...2022년 말 완료

수원시 화서공영주차장 일원(수원 화서)이 국토교통부 주관 '2019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에서 '2019년도 제8차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됐다.
 후보지는 현재 화서공영주차장의

로 사용 중인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1-13(7864㎡) 일원이다. 이번 공모에서 '수원화서'를 비롯한 11곳(2675호)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수원시가 응모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는 창업지원 주택,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등 3가지 일자리 주택을 대상으로 진

행됐다. 화서공영주차장은 창업지원주택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후보지 선정에 따라 화서공영주차장 일원은 행복주택 500호, 환승주차장(300여 대)을 비롯한 환승 시설, 창업·스타트업 사무 공간·교육장·회의실 등 창업 지원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사업은 수원시와 LH, (주)KT&G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수원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LH는 주택건설비(최대

'대유평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화서역과 복합환승센터(창업지원시설 등), 상업시설, 근린공원, 주거시설이 연결된 주거상업업무가 복합된 하나의 단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사업은 수원시와 LH, (주)KT&G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수원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LH는 주택건설비(최대

500호) 500억여 원을 지원한다. 대유평지구단위계획 제안자인 (주)KT&G는 환승시설 등 시설 투자비 350억여 원을 지원한다. 총 1300억여 원이 투입된다. 수원시와 LH는 이른 시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 착공해 2022년 말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지는 반경 5km 안에 성균관대·아주대·경기대 등 3개 중

합대학이 있고, 고색산업단지·삼성디지털단지와 가까워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또 대유평 지구 내에 숙직공원·서호공원·여기산 공원·서호꽃피공원 등 대규모 근린공원과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주거환경이 좋고, 화서역(100m 거리)·수원역·서수원버스터미널 등이 가까워 교통도 편리하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지 주변 교통인프라가 우수해 신분당선까지 연장되면 강남·

관교·분당·광교·화서(창업지원센터)역이 벤처기업 축이 될 수 있다”며 “행복주택 공모사업 선정으로 창업과 주거를 아우르는 복합개발사업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 대상지 일원은 서수원 뿐만 아니라 경기남부지역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수원시가 벤처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태 기자



함께라서 좋은 새해입니다

마음껏 꿈꾸고
 서로의 희망을 나누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드는
 2020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한전, 4억 달러 규모 멕시코 노르떼Ⅱ사업 프로젝트 본드 발행

국내기업 주도로 PF방식의 한국수출입은행 보증부 채권 최초 발행… 투자비 약 5880만 달러, 상업운전 6년 만에 전액 회수

한국전력 멕시코 현지법인(KST)은 구랍 20일 미국 증권시장에 4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함으로써 멕시코에서 운영 중인 노르떼Ⅱ 사업의 리파이낸싱(Re-financing)을 달성했다.

해외 인프라 자산에 대해서 국내 기업이 주도해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보증부 프로젝트 본드를 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은 금융비용 절감과 레버리지 최적화를 통한 추가수익 창출을 위해 리파이낸싱을 추진해 왔다. 한전은 프로젝트 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함으로써 기존 차관의 잔여분을 모두 상환 완료하고, 투자비 약 5,880만 달

러도 상업운전한 지 6년 만에 전액 회수하게 됐다. 또한, 기존 차관 대비 약 2.5%p의 금리 인하 및 배당가치 상승으로 수익성을 제고했다.

이번 리파이낸싱은 수은 보증부 채권(2억5,000만 달러)과 일반 채권(약 1억5,100만 달러)의 혼합방식으로 추진된 최초의 사례로 수은-사업

주(한전, 삼성자산운용)-현지법인(KST) 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투자자들과의 끈질긴 협상 끝에 성사됐다.

한전 관계자는 “노르떼Ⅱ 사업 리파이낸싱 성사로 기존 운영사업의 조달금리 인하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PF

대출 위주에서 한발 나아가 재원조달의 다양화를 꾀함으로써 글로벌 PF 시장에서 한전의 저력과 브랜드 파워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채권보증을 지원한 수은측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 본드 보증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수단 확

대 및 국내의 보험사의 PF 사업 참여에 기여했다”면서 “수은의 해외 리파이낸싱 지원이 우리기업의 해외사업 확대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전, 멕시코 노르떼Ⅱ 사업은 한전이 자본 56%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삼성자산운용 및 테천트와 공동으로

멕시코 치와와에 433MW 규모의 가스복합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 하는 사업이다.

2013년 12월부터 상업운전 중이고 2018년 기준 3.622GWh의 전력을 생산해 현재까지 누적 매출 7,902억원, 순이익 929억원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운영중이다. ■박종민 기자

신한금융-SK그룹, 두 번째 사회적기업 지원 펀드 결성

120억원 규모…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앞장

신한금융그룹과 SK그룹이 사회적 기업 및 소셜벤처 지원을 통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두 번째로 힘을 합친다.

신한금융그룹은 구랍 30일 SK그룹과 120억원 규모의 사회적 기업 지원

역량제고 지원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 개발 및 확산 등을 추진해 왔다.

이날 밝힌 120억 규모의 2호 펀드는 ‘사회적기업 금융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결성한 200억 규모의 1호 펀드에 이은 두 번째 펀드다. 1,2호 펀드를 합하면 총 320억 규모로 이는

정책금융을 제외한 민간 금융회사가 주도한 사회적 기업 지원 펀드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사회적기업 2호 펀드는 신한GIB 75억원, 신한금융희망재단 20억원, SK 25억원을 출자해 결성했고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임팩트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예정이다. 또한 운용은 1호 펀드와 동일하게 신한대체투자운용이 담당한다.

투자 대상기업 선정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는 1호 펀드에 이어 SK가 담당한다. SK는 지난

2016년부터 사회적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정도를 화폐 가치로 환산, 이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SK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바탕으로, 그룹의 폭넓은 역량을 활용해 투자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 안정적 수익창출 여부,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 등을 고려해 투자대상을 선별하고 기업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투자를 실행한다. ■김예슬 기자

한국동서발전-중소기업 발전폐수재이용 기술개발

한국동서발전(주)는 구랍 30일 울산 중구에 소재한 본사에서 전 사업소 폐수처리 담당자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멤브레인 활용 발전소 고도폐수처리 시스템 개발 과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은 충청북도 음성군 일원에 총 사업비 약 1조원을 투자해 최신기술과 최첨단 환경설비를 도입한 1,000MW급 친환경 천연가스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 내륙지역은 각종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공업용수 수요가 급증

하고 있어 공업용수 사용량 절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번 연구개발은 협력사와 공동으로 멤브레인 방식의 선진 수처리 기술을 국산화에 기존 폐수처리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증함으로써 발전폐수의 70%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개발 성과를 발전소에 확대 적용하면 갈수기 발전소 공업용수 부족에 따른 안정적 전력공급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폐수처리 시설 부지도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수만 기자

KB손해보험, 새해 첫 신상품

‘KB건강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출시

손보 업계 최초 5대 납입면제 사유 발생 시 기납입보험료 환급 ‘Pay-Back’ 기능 탑재

KB손해보험은 납입면제 사유 발생 시 차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면제 뿐만 아니라 기 납입보험료까지 환급해 주는 등 한 단계 더 진화한 새로운 형태의 연반기 종합건강보험인 ‘KB건강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를 새해 첫 신상품으로 2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KB건강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는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질병, 상해, 배상책임 등 종합보장이 가능한 상품으로 사망, 후유장애 및 각종 진단비 등 일생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건강보험이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은 5대 납입면제 사유인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발생 시 손보 업계 최초로 기 납입보험료까지 환급해주는 ‘Pay-Back’ 기능을 탑재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면 차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만 면제되었으나 이 상품에서는 추가로 납입면제 사유 발생 전까지 납입된 보장보험료도 전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고객이 한층 더 강화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신규 담보를 개발해 보장의 폭을 대폭 넓힌 점도 눈에 띈다.

101대 질병수술비 담보 개발을 통해 수술비 보장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업계 최대인 101가지 질병으로 인한 수술 시 매회당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기존 재진단 암(△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여암) 진단비에서 보장이 제외됐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전립선암에 대해서도 재진단 암 진단비를 추가함으로써 손보 업계 최초로 모든 암에 대한 재진단 암 보장을 가능하게 했다.

이 상품은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연반기 갱신형’으로 10/15/20/30년 만기 중 원하는 기간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5대 납입면제 환급형’ 뿐만 아니라 ‘8대 납입면제 기본형(5대 납입면제 + 말기 간/폐/신장 질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게 했다. ■진보라 기자

KT, 5G 스트리밍 게임 가입자 1만 돌파

5000명 추가 혜택

KT가 구랍 29일 기준 ‘5G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 무료 체험 가입자 1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일 서비스 출시 후 9일 만의 결과다. 이와 같은 고객 성원에 힘입어 추가 5,000명에게 무료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이번에 선보인 5G 기반의 스트리밍 게임은 초고속·초저지연의 특성이 있는 5G 네트워크를 통해 게임 다운로드 없이, 서버에 저장된 게임에 접속하여 즐기는 서비스다.

KT는 구랍 21일 가입 시작 2일 만에 5,000 가입자를 넘어섰고, 26일 7,000 가입자를 확보한 데 이어 29일 오전 1만 가입자를 달성했다. 이는 콘솔 및 각 게임의 타이틀 구매 없이도 고품질 대작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고객 성원에 힘입어 KT는 서비스 무료 체험의 기회를 추가 5천 명에게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출시 초기 가입자들에게 원활한 게임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만 명으로 가입자 수를 제한하였으나, 고객 성원에 부응코자 데이터 이용 환경을 추가 분석해 가입자 한도를 늘린 것이다.

한편, 전체 가입자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2030세대의 호응이 컸다. 20대와 30대가 각각 44%, 45%로 89%를 차지했다. 전체 가입자 중 남성의 비중은 86%로 콘솔 및 PC게임의 주 사용층과 일맥상통했다.

가장 많이 이용한 게임은 세인츠로우4, 바이오쇼크 인피니티, 메트로

시리즈와 같은 대작 스테디셀러 게임이었다. 김오브파이터즈, 메탈슬러그 시리즈 등 전통적 시리즈 게임들도 상당 시간 이용되며 뒤를 이었다.

KT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50종의 게임을 모두 다운로드 받을 경우 240기가의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이런 대작 게임을 스트리밍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점이 고객들의 큰 호응을 끌어들였다. 또 KT ID를 활용한 간편한 로그인, KT 5G 스트리밍 게임 전용 미니 조이스틱 등 편리한 이용 환경 또한 뜨거운 반응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KT Shop에서 진행됐던 미니 조이스틱 무료 이벤트는 예상보다 빠른 소진 속도를 보여 오는 15일까지만 진행될 예정이다. ■이창은 기자

GS25, 택배예약·실시간 배송조회 등 가능한 편의점 택배 전용 앱 출시

GS25가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 택배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편의점 택배 전용 애플리케이션(이하 GS25 택배 앱) 선보였다.

GS25가 이번에 선보인 GS25 택배 앱은 택배 서비스의 접수부터 도착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택배 플랫폼이다.

주요 기능은 택배예약, 실시간 배송조회, 편의점 위치 조회 서비스로

할 수 있어 접수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다량의 택배를 접수하는 고객에게 가장 효과적이다.

실시간 배송조회는 물품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GS25 택배 앱에서 택배 접수 시 발급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물품의 이동 경로 및 배송 완료 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송수만 기자

4반세기 경민 4차산업융합대학

**경민!**
KYUNGMIN UNIVERSITY

더

MORE & PLUS
더 많고!
더 많이!

나아갈 일만 남았다!

< 2020학년도 전형안내 >

* 3 3년제 / 4 4년제

계열	학과	정원	계열	학과	정원
인문사회	아동보육과	86	공학	정보통신과 ③	70
	유아교육과 ③	32		소방안전관리과	90
	국제비서과	60		게임콘텐츠과 ③	60
	사회복지과	70		영상콘텐츠과	60
	세무회계과	60		IT경영과	60
	효충사관과	60	자연과학	간호학과 ④	75
	보건의료행정과	80		뷰티케어과	60
	아동미술지도과 ③	60		호텔외식조리과	90
	호텔관광경영과	70		호텔외식서비스과	60
	공간디자인과 ③	90	예·체능	공연예술과	60
공학	건축과	60		레포트·태권도과	90
	융합소프트웨어과 ③	70			

정시 모집 - 19. 12. 30 (월) ~ 20. 1. 13 (월)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545 | 대표전화 • 031.828.7700 | 입학문의 • 031.828.7721~5

마포구 ‘500만 그루 나무심기’ 순항… 도심 곳곳 ‘녹색 빛’

지난해 총 42만5000 그루 식재… 학교 숲 조성·아파트 측벽 녹화·움직이는 공원 및 녹색그늘 숲 조성 등 추진

마포구가 미세먼지와 폭염 등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세부 계획을 구립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8월19일 공기청정도시를 향한 비전 선포식과 함께 시작된 마포구의 나무심기 사업은 도심 속 한

뽕의 자투리땅에도 나무를 심는다는 목표 아래 단일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500만 그루의 세부 목표치를 공개한 바 있다.

수목 500만 그루는 △1년 동안 노후 경유차 1만600대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에어컨 400만 대(15평형)가 5시간 동안 내뿜는 열을 낮

추는 효과와 △성인 350만명이 1년간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적극적인 민·관·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총 76개소 17만8,191㎡ 면적에 74억원(공공예산 18억원, 민간예산 52억

원)을 투입해 42만5,000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당초 목표치인 33만 그루의 128%에 해당하는 수치다.

구 관계자는 “우체국과 한국중부발전소 등으로부터 약 52억원의 자금을 유치한 결과 예산절감 효과와 민·관 협치를 강화하는 계기를 만

들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구에 따르면, 향후 사업은 공동체 나무심기, 가로녹지 확충사업, 생활권 녹지확충, 민간주도 나무심기 등 4개 핵심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특히, 미세먼지에 민감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포구 내 모든 학

교에 학교 숲을 조성하고 아파트 측벽 녹화, 움직이는 공원 조성, 녹색그늘 숲 조성, 미세먼지 저감용 반려나무 가정 보급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사업들이 추진될 전망이다.

구는 이 과정에서 공기청정도시 조성 및 유지관리 분야에 필요한 직·간접 일자리 약 50만 개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이 미래를 심는 것”이라며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도시미관 향상, 열섬현상 완화 등 수목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시키고 전국적인 모범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중랑구, 망우로 3km 구간 노후 가로등 LED로 교체

야간 운전자·보행자에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중랑구는 망우로 3km 구간에 노후 가로등을 LED가로등으로 바꾸는 작업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최근 교체작업을 완료했다.

간에 대해 2017년부터 노후선로 정비 및 LED가로등 개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지난 2017년 121등 교체를 시작으로, 2018년 154등을 교체했다. 2019년 11월에는 망우사거리부터 구리시

계 1.3km 구간에 대해 총 7억1,000만 원을 투입해 LED가로등으로 207등을 교체 완료했다.

망우로 전 구간에 대한 가로등 개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좋은 빛환경 조성 및

서대문구, 2020년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시행자 선정

이화여대·(주)이푸드랩과 컨소시엄 구성… 신촌박스퀘어서 청년키움식당 운영

서대문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한 ‘2020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공모에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구립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외식업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제 식당을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2019년 3월부터 신촌박스퀘어 2층에 청년키움식당을

뒤 실제 창업을 이뤘고 그 밖의 여러 참가자들도 관련 분야에 취업했다.

최근 전국 40개 팀이 참여한 ‘2019 청년키움식당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베지베어 팀이 대상을, ‘푸드오브라크 팀’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신촌박스퀘어에서 식당을 운영한 2개 팀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참고로 2019년에 서울 신촌, 양재, 은평, 전북 완주, 충남 천안 등 전국 5곳에

서 청년키움식당이 운영됐다.

올해는 서대문구, 이화여대, (주)이푸드랩이 민·관·학 컨소시엄을 구성해 새로운 청년키움식당을 운영한다. 구는 즉석 조리 메뉴 판매에 중점을 둔 2층 ‘청년키움식당’ 외에도 1층에 공유 주방, 조리 컨설팅 장소, 빵과 디저트류 판매 공간 등으로 활용될 ‘이팝마켓’을 조성해 다양한 분야의 외식업 참여를 모색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키움식당 참가팀 모집은 2020

종로구, 청소년 겨울방학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주도적·능동적 사회 일원으로 성장 지원

종로구는 오는 6일부터 23일까지 ‘2019 청소년 겨울방학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는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소외된 이웃을 이해하고, 나눔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019 청소년 겨울방학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함께 지키는 세상, 함께 공유하는 세상, 함께 나누는 세

상’을 주제로 관내 청소년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친환경생활 ‘에코노트 만들기’ △양말목으로 업사이클링 △갈대 바람막이로 겨울준비 △도서관 안녕 책갈피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폰 세상 △국립어린이과학관 전시 보조 △에코리더에 한발짝 △러♥브레드 △외교관과 함께하는 생생한 역사 문화 이야기 등이 있다.

친환경생활 ‘에코노트 만들기’는 버려지는 2019년도 다이어리 속지로

는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폰 세상’, ‘면 생리대를 직접 만들어 기부하는 에코리더에 한발짝’, 대사관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문화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외교관과 함께하는 생생한 역사 문화 이야기’ 등이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 사회복지과(02-2148-2585)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중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주변을 돌아보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인지 메이커 프로그램’ 등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 사회 리더인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청소년들을 위해 여름·겨울 방학 동안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7~8월 ‘2019 청소년 여름방학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창경궁에서 듣는 문화재 이야기, 사이버 폭력 로그아웃,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등 14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총 55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이상관 기자

금천구가 금천 G밸리 및 전통시장 등 총 70개소에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을 완료하고, 새해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구는 시비 8억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금천 G밸리 및 전통시장 등에 공공와이파이존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G밸리 산업협회, 전통시장 상인회, 각 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한 장소에 총 70개의 AP(와이파이 무선접속장치)를 설치했다.

이번에 AP가 설치된 곳은 △금천 G밸리 35개 △전통시장(현대시장, 은행나무시장, 남문시장, 우시장, 맛나는 거리) 20개 △공원, 정류장 등 주

민이용시설 12개 △금마하루 2개 △시흥동 치안센터 1개 등이다.

구는 공공와이파이존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는 구청,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무선망 네트워크 장비를 10G급으로 교체해 공공와이파이 속도를 높이고, 정보보호시스템과 무선인증서버 구축을 통해 정보보안도 강화했다.

■김용수 기자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민간 위탁기관 모집

동대문구가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을 모집한다.

답십리동에 위치해 있는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는 총면적 2,897.88㎡ 규모로, 입주기업을 위한 공간, 메이커스페이스, 회의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입주기업 역량 강화(재무회계 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 △입주기업 창업 지원(홍보, 마케팅, 투자유치) △졸업기업 사후 관리 및 창업 지원 연계 강화 △지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창업 네트워크 조성 및 관리 △메이커스페이스, 교육실, 창업 통합지원 플랫폼 관리 등이다.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며,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창업지원센터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한 실적이 있는 지역 내 대학 및 비영리법인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단,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면허·허가·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휴·폐업, 업무정지, 부당업체 지정 등의 상태에 있는 기관은 응모할 수 없다.

위탁운영에 응모를 원하는 기관은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구 경제진흥과에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위탁기관은 서류 접수 마감 후 응모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안 설명 등을 거쳐 1월 중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www.ddm.go.kr)의 고시 공고 에 게시된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구 경제진흥과(02-2127-4366)에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창업이라는 꿈을 향해 도전하는 주민들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관 기자



강서구,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총력

온기나눔쉼터·마을버스 광고판·종량제 봉투 등 활용해 집중 홍보...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 적기에 찾아 신속 지원

강서구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방법을 내놓았다.

구는 효과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겨울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기나눔쉼터를 비롯한 마을버스 광고판 등을 활용해 일상생활 속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구립 31일 밝혔다.

우선, 버스정류장 및 교차로 등 지역 내 주요지점 45개소에 설치된 온기나눔쉼터에 복지사각 위기가구 신고를 위한 홍보물을 설치했다.

온기나눔쉼터에 설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카카오톡 '강서구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코너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신고를 접수 받

은 동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비롯한 가구별 맞춤형 지원, 사례관리 선정 등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또, 마을 곳곳을 누비는 마을버스 주요노선 20대의 차량 내부와 외부 광고판에도 위기가구 발굴 홍보 광고를 게재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종량제 재사용 봉투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알려 주세요"란 문구를 삽입해 위기가구 발굴 홍보를 연중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구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지원 기간을 오는 2월말까지 운영한다.

1월에는 생계가 곤란해 소액건강보험료 지원을 받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 등 130세대의 생활실태를 조사해 위기가구 조기 발굴에 나선다.

여관, 고시원, 여인숙 등 총 290개소의 비주택 주거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있는지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단전·단수와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주 사망 가구 등 1,400여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앞으로 대형공사장 가림막 활용 등 홍보 다변화는 물론, 직업소개소, 나눔가게 등 주민밀착형 종사자의 협조를 얻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온기나눔쉼터, 마을버스 광고판, 종량제 봉투 등 위기가구의 발굴을 위해 홍보 채널을 다변화 했다"며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을 적기에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용수 기자

동대문구, 효율적인 구정 운영 위한 조직개편

체육진흥과·아동청소년과·지속가능도시과 등 신설

동대문구가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한다.

구는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수 개월 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과 국장단 회의 등을 거쳐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행 1의회, 5국, 1단, 1소, 3담당관, 35과, 14동, 198팀에서 1의회, 5국, 1소, 3담당관, 37과, 14동, 212팀으로 개편했으며 2020년 1월1일부터 개편 체제로 운영한다.

우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체육진흥과를 신설했다. 체육 업무는 기존 문화체육과 내에 속해 있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분리했다. 이로써 문화체육과는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로 나뉘게 됐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고자 아동청소년과도 신설했다. 기존 노인청소년과에 속해 있던 아동청소년 업무를 분리해 단독으로 과

를 구성했다. 기존 노인청소년과는 부서명을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변경했다. 복지정책과에 속해 있던 장애인복지팀은 이번에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전입했다.

또 도시재생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속가능도시과를 신설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거정비과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 밖에도 총무과는 행정지원과, 교육진흥과는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는 스마트도시과,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는 세정과, 세무2과는 세무과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 구민이 직관적으로 부서의 업무를 이해하고 구정에 대한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는 시대 흐름에 맞춰 일자리정책과에는 청년활동지원팀, 교육지원과에는 미래인재육성팀, 스마트도시과에는 빅데이터팀, 아동청소년과에는 아동보호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는 인생이모작팀, 맑은환경과에는 미세먼지관리팀 등을 신설했다.

구로구, 천왕도시자연공원 가족캠핑장 착공

7월 개장 목표... 야영장 30면·주차장·화장실·샤워장·탕비실 등 설치

구로구가 '천왕도시자연공원 가족캠핑장'을 조성한다.

구는 '위라밸 분위기 확산에 따라 가족과 함께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추

세에 맞춰 집에서 멀리 가지 않아도 자연을 즐기며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천왕산 향골지구 야영장을 만든다"고 구립 31일 밝혔다.

'천왕도시자연공원 가족캠핑장'은 연동로12길 149 일대에 들어선다. 총 면적 2만7550㎡ 규모에 야영을 위한 데크 30면이 설치된다. 주차장과 화장실, 샤워장, 탕비실 등의 부대시설

성동구, 2년 연속 정부혁신평가 '대통령상' 수상... 기초자치단체로 유일

성동구가 행안부 주관 '2019년도 정부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대통령상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 243개(광역17, 기초226)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다.

이번 혁신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정부혁신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진행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정부

혁신평가단과 전국 남·여 204명의 국민평가단이 1차 서류평가와 2차 전문가 면접평가를 실시했다.

구는 핵심정책인 '스마트 포용도시'를 중심으로 '혁신·상생·소통·안전의 성동구'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의 주민주도 혁신행정 추진과 여러 기관으로 확산 가능한 다양한 혁신 사례들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율혁신' 분야에서는 △소셜벤

치 일반지 성동구! 소셜벤처 지원확대 청년 주거복지모델 성동한양상생학사 등 2건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평가 받았으며 사회적가치를 강화하는 '정책 조정능력' 사례로는 △공공 의료복지모델 효사랑 건강주치의 △자영업자들의 꿈을 지켜주는 성동 안심상가가 인정받았다.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분야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성동 원플

러스원 사업이 우수사례로 뽑혔으며 '주민주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례로는 △셉테드(CPTED) 안전마을 조성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린이 안심 통학로 만들기 사업 '협업성과' 우수사례로 △통행방해 전신주 이설(성동구-한전-한국통신 협업) △CCTV 영상공유시스템 구축(구청-소방서-경찰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구청장의 탁월한 혁신 리더십과 구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혁신지식행정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부혁신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그간의 행정혁신 성과와 주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이 인정받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혁신과 포용으로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신뢰받는 구정운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관 기자

성으로 캠핑의 진수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천왕도시자연공원 가족캠핑장'이 인근에 위치한 향동 푸른수목원 등과 어우러져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주민들이 즐겁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용수 기자

강서구, 오는 2월 말까지 관내 자치화관을 중심으로 방학을 맞은 저소득가정 자녀를 위해 '신나는 방학-가보고 싶은 교실'을 운영한다.

강좌는 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고 여러 지역단체가 힘을 합쳐 연다. 각 동의 마을문고와 송송동 지역아동센터, 풍덩예술학교, 인수동 작은 도서관이 지원에 나섰다. 구는 지역의 여성단체와 전·현직 교사, 대학생 및 종교단체 등 지역 인적 자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13개 동에서 총 41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각 동별 30명 내외로 총 5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 가능하다. 희망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강좌는 학습지도, 현장학습, 인성

양천구, 시니어 영양교실 참여자 선착순 모집

양천구는 2일부터 신월보건지소 7기 시니어 영양교실에 참여할 구민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구는 어르신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시니어 영양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영양사가 직접 이론 수업 '시니어 건강식생활교육'과 실습교육인 '시니어 요리교실'을 병행하며 진행한다.

신월보건지소 7기 시니어 영양교실은 2월27일부터 3월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신월보건지소 영양교실 4층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이론 수업인 '시니어 건강식생활교육' 시간에는 △대 영양소의 역할과

컬러 푸드 △제철 식재료와 음식 △채식과 곡식의 중요성 △아침 식사 중요성 △천연 재료 등 균형 있는 식단관리를 위한 내용을 배워본다.

실습수업인 '시니어 요리교실'에서는 초보밥상, 생일상, 보양식, 건강밥상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요리를 배워본다. 또한, 수업이 끝난 후 집에서 가족들과 다시 한 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조리법도 제공된다.

양천구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남성은 누구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2일부터 신월보건지소에 전화(02-2620-4758)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용수 기자

2020년 庚子年 새해에도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봉구의회의가 함께하겠습니다.



도봉구의회 DOBONG DISTRICT COUNCIL

경기도의 변화, 꼼꼼하게 완성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의 태양이 여러분 계신 곳곳을 두루 비추며 빛과 온기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민선7기 경기도정이 중반에 접어들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성과를 뒀다고 자부합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은 세웠습니다. 이제는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완성도를 높여나갈 때입니다. 올해는 지난 도정의 성과들을 기반으로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도민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변화가 한 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한 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피고 더 정성스럽게 다듬어 작은 변화들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모두가 체감하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공정사회 완성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작은 적폐에 눈감으면서 큰 적폐를 청산할 수는 없습니다. 큰 작은 적폐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 부조리, 입찰 담합, 페이퍼컴퍼니와 같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온 부동산 적폐를 더 촘촘하게 감시하겠습니다. 불법 사금융, 유통기한 위·변조 등 도민의 삶을 어지럽히는 민생 침해 범죄들도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 엄중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은닉세원 발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143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체감관리단은

더 확대해 억강부약을 실현하겠습니다. 하천과 계곡 정비를 완료해 올 여름에는 맑고 깨끗한 청정계곡을 도민 여러분의 품에 되돌려드리겠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이종노동자와 현장노동자의 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평화시대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북미관계나 남북관계가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평화는 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상황이 안 좋을수록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면해서 개선 관광 재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단했던 개성의 문을 열어 꼬인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풀겠습니다. 긴장이 높아지는 한반도에 평화의 길을 내겠습니다. 개성관광이 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개의 마중물이 될 거라 믿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해 11월 정부로부

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발판이 마련된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도민의 참여 속에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통일경제특구 유치를 비롯한 평화경제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도 계속 됩니다. 공공기관 3곳의 경기북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생활 SOC 시설 확충을 비롯해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도민복지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복지확대를 위한 노력은 정부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성장임 멈춘 오늘날, 복지 투자는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입니다.

경기도의 복지정책은 지역화폐와 결합해 보다 직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실제,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성비 높고 경제 효과까지 지닌 복지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가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제도, 청년 기본소득,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와 같은 경기도민의 차별화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견고하게 정착시키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농민 기본소득으로 더 촘촘한 보편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의 주도적인 정책참여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구직 청년에게 지급하게 될 청년 면접수당은 이 시대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필연적인 제도,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상생하는 경제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경제는 곧 순환입니다.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그것이 순환하지 않는다면 죽은 경제입니다. 할애이 온몸구석구석을 순환할 때 비로소 생명력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에서부터 혈액을 공급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개원한 시장상권진흥원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매진할 것입니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5,37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역화폐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고, 지역화폐가 경기도 구석구석 모세혈관을 순환하며 생명력을 더 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과 함께 머리를 맞댄 ‘일자리 정책마켓’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기술보호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와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으로 산업의 보호와 육성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도민의 생활환경을 꼼꼼하게 개혁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고, 경기도형 도시

재생 사업으로 더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노력도 계속해서 기울이겠습니다. 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 영세사업장 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다각도의 정책들을 동시다발로 추진해 대기질을 개선해나겠습니다.

교통 역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다 공정하고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노선입찰제 방식의 경기형 버스준공영제가 시작됩니다. 철도와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병원 수술실뿐 아니라 신생아실 내부로 CCTV 설치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의료사고에 대한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은 경기도정의 나침반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주권자인 도민 여러분의 뜻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뜻을 따라 주저함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 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자년(庚子年) 새해 아침에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존재 이유는 오직 ‘도민행복’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사랑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송한준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도민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취미해를 맞아 지혜가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경기

도의회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큼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도민행복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은 국제 관계도 힘들었고,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컸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이 도민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 다. 포용국가의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경제 정책의 시련도 깊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환경도 평화 정착에 걸림돌이 됐습니 다. 그러나 아세안 공동체를 향한 큰 걸음도 있었고,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믿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변화무쌍한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화다운 의회’를 실현하면서 도민행복에 힘써왔습니다.

경기도가 기본소득국가의 신평탄을 쏘아 올리는데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시·군 현장을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이어가면서 민생 정책이 하나라도 더 실현되도록 토대를 닦았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지역상당소를 통한 민의 수렴 확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의회 국제교류 협력의 장을 기존 아시아 중심에서 북미까지 확대하는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정책토론회추진제와 정치아카데미 등으로 제10대 의회의 지향점인 ‘공부하는 의회’상

도 정립했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출범 때의 초심을 되새기며, ‘사람중심 민생중심’을 실현하고, ‘의화다운 의회’를 소명으로 여기겠습니다. 새해에도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과 경기도교육청의 ‘공평한 교육’, 경기도의회 의 ‘공존의 미래’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경기도민이 더 행복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바로 경기도민입니다.

시민이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한 빛나는 하남



김상호 하남시장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시민 여러분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고, 소망하는 일을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하남시 공직자들도

2020년에는 시민이 더욱 편안하고, 시민이 더욱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지난 해 시 승격 30년을 맞은 하남시는 큰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교신신도시가 발표되었고, 미사지구 정비가 완료되어 가는 한편, 감일지구에 또 다른 택지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 사업도 막바지에 이르러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개발과 건설사업의 이면에도 또 다른 중요한 변화도 겪었습니다.

하남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과 치매 등 고령사회에 대비한 보건행정도 전국을 선

도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이자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역시 하남시에 쉽지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졌고, 행정이 갈당해야 할 복지의 대상은 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생과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정운영을 펼쳐겠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많은 분들이 새롭게 하남시민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좋은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하남시민 모두가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또 다른 시정 목표로 삼겠습니다.

부족한 인프라를 보강하고 문화 동력으로 하는 원도심 재생을 통해 균형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자치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치는 참여입니다. 하남시에 바라는 시민 여러분의 꿈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그 꿈을 향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결을씩 나아가는’ 2020년 하남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동적인 하남의 밑그림 그려나갑니다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남시민 여

러분! 희망으로 힘차게 열어가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의회가 한층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하남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신뢰받는 의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민 여러분께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의회를 믿고 격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온 우리시는 이제 시민의 삶을 보듬고 도시의 가치를 더하는 질적인 성장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급격한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적 갈등과 현안을 조정하며 침체된 원도심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가 늘면서 다양해지는 시민의 욕구와 불편을 파악하며 유례없는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의회가 변화의 중심에 서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남시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시 규모에 걸맞은 자족기능을 갖추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한 곳 소외된 지역 없이 하남시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품격

있는 도시로 변모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오롯이 담아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하남의 도약을 이끌 지하철 시대가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정부의 교신 신도시 조성 사업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변화를 주도하며 명실상부한 수도권의 핵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의원 모두의 노력이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도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개원 첫날 다짐했던 시민과의 약속

속을 잊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소통의 폭을 넓히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역동적인 하남의 밑그림을 그려나겠습니다.

술 가쁘게 달려와 어느새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제8대 의회가 새로운 각오로 우리시의 희망찬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지쳐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경자년 흰 쥐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 아침

성남시민순찰대 11곳→21곳으로 확대... 생활밀착형 순찰 강화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11곳에 배치해 운영하던 200여 명의 성남시민순찰대를 2020년 3월 2일부터 21곳으로 늘려 활동 지역을 확대한다.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활동 범위를 늘려 생활밀착형 순찰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오는 1월

15일~17일 공개모집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204명의 성남시민순찰대를 구성한다.

구별로 수정구 9곳, 중원구 7곳, 분당구 5곳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평균 10명의 성남시민순찰대를 배치한다. 이들은 오는 11월 27일까지 맡은 구역에서 하루 2~4시간 근무한다.

학교 주변(키즈존), 청소년 밀집 지역(유스존), 경로당 주변(실버존), 주택 밀집 지역(빌리지존), 공원(파크존) 등 생활가점별 순찰 활동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지킨다. 밤에 귀가하는 여성은 버스정류장 등 약속한 장소부터 집까지 동행해 안심귀가 서비스를 편다. 독거노인 안부 살피

기, 중원구 중앙동, 금광1동 재개발 사업구역의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지킴이 활동도 한다.

절도나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력해 대응한다.

2019년 3월 초~11월 말 11곳 지역에서 활동하던 성남시민순찰대(206명)는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2059건), 응급환자, 만취자 이송, 멧돼지

출몰 신고 등 시민 돌봄서비스(2063건), 공공장소 흡연, 고성방가 등 기초질서 문란 행위 계도(1209건), 주거환경 정비(2758건), 공공시설물 파손확인(1183건), 사고 위험요소 조치(641건), 기타(1402건) 등 모두 1만1315건의 활동을 했다.

성남시민순찰대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각종 생활 불편을 해소해 시민 효응이 크다. ■이성규 기자

과천시, 지역화폐 ‘과천토리’

31일까지 10% 특별할인 판매... 총 15억 규모

과천시는 2020년 새해를 맞아 오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과천화폐 ‘과천토리’를 10% 할인해 판매한다. 과천토리는 평상시 1인당 월 40만원의 한도 내에서 6%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나, 특별할인 판매 기간 중에는 10% 할인이 적용돼 40만원의 과천토리를 36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특별할인 판매는 총 15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단, 기간 중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할인 판매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종이형 과천토리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내 농협 지점 9개소를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은 농협중앙회 지점 5개소(단위

농협 제외)와 스마트폰 앱 ‘경기지역화폐’를 통해 구입 가능하다. 한편, 올해 4월 발행된 과천화폐 ‘과천토리’는 당초 발행 목표 금액인 50억원을 넘어 12월 말 현재 총77억원이 발행됐다. 과천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2020년에는 과천화폐 발행 규모를 총124억원으로 확대했다. 김중천 과천시장은 “2020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하게 됐다. 과천토리를 이용하시면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더욱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가평군, 2019년 종무식 갖고 새출발 다짐

가평군은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성기 군수를 비롯한 국·과·소·읍면장, 직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뜻깊은 기해년(己亥年)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2019년 종무식을 가졌다. 김 군수는 송년사를 통해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창조도시’ 가평군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미래 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을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뜻깊은 한해였다”며 “여러분 여간 속에서 도 각 분야에서 가평이 가진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유감없이 보여준 군민

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군수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에도 공직자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종무식 석상에서는 교통과 홍복숙·농업정책과 김기철 팀장이 모범공무원으로 발탁돼 국무총리 상을, 복지정책과 박재근 과장·농업

기술센터 장동규 소장·보건소 박정연 소장·하가민원과 장동훈 팀장 등 4명이 각 분야 유공자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상면 김두영·실악면 김동현 씨, 가평읍장 장동선·실악면장 박철선 등 민간인 13명과 공무원 4명이 도정 및 군정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도지사, 군수 표창을 받았다. 한편 종무식이 앞서 열

린 을 하반기 정년 및 명예 퇴직자에 대한 정부포상에서는 전) 유근웅 경제복지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세정 과장 임대원·복지정책과장 변애영·실악면 김동현 씨, 가평읍장 장동선·실악면장 박철선 등 민간인 13명과 공무원 4명이 도정 및 군정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도지사, 군수 표창을 받았다. 한편 종무식이 앞서 열

신년사

여주만의 도시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형진 여주시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희망은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일지도 몰라요.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을 한 해 여러분이 희망하는 일을 맡게 할 수 있기를, 여러분이 희망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기를, 무엇보다 여러분 자

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는 합니다. 지난 해 10월, 한국이 WTO 개도국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 농어촌지역이 99.5%이상인 여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국제정세와 변화하는 농업정책을 잘 파악해 이에 대응하고 여주시 맞춤형 농업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현재 경기도 전체 인구는 증가하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안타깝게도 여주시는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시 발전의 질적 변화가 요구됩니다. 여주라는 도시 규모와 환경에 맞는 도시 계획을 수립할 시점입니다. 건축가 유현준 교수는, 여주에 대해 “여주가 강남이나 세종이나 판교 같은 도시를 모델로 개발하는 순간 100% 망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주는 여주만의 도시 모델

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서로 모여서 돕고, 함께 나누는 생활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로의 성장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① 문화예술교를 중심으로 한 친수기반형 도시재생 벨트 조성은 이러한 여주에 걸맞는 성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주의 구도심과 오하지역을 문화예술교와 출렁다리로 이어서 여주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강남·북을 즐겁게 오가게 할 것입니다. 새로이 놓여 질 이 다리는 기존의 세종대교와 여주대교와 함께 여주 도심을 벨트와 해 여주5일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입니다. ② 지난 해 국비 90억원을 확보해 여주 역세권에 만들어지는 학교시설 복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여주초등학교를 2,257세대가 들어오는 여주역세권으로 이전하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교육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입니

다. 초등학교와 공동주택, 청소년수련관 등이 한 곳에 있어 학생들과 주민들이 시설을 함께 활용하며 자율적으로 두레 성격의 마을 공동체,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③ 하동 경기실크 부지의 다각적인 활용과 함께 노후화 된 제일시장의 재정비를 통해 하동 구도심 주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민수당 지원 등 공공분야의 지역화폐 사용처를 다변화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확대 지급하여 소비자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자족하는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④ 친수기반형 도시재생 벨트 조성, 학교시설 복합화, 구도심 정비 등을 통해 시가지의 핵심시설로 압축해 재정비하면서, 읍·면·동 지역으로 복합화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읍·면·동 청사 시설 복합화와 함께 행정 서비스 또한 행정, 보건, 농정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주 전역에 상수도 설치와

하수관로 정비, 시도 3개, 도시계획도로 17개, 농어촌도로 11개 노선의 확보장, 보행자 도로 17개소 설치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⑤ 급격한 고령화와 소득감소로 파괴되어 가는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비 49억을 확보한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연계해 지역 농산물 선순환 먹거리 육성 등 자율적인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치매 어르신을 중점 대상으로 한 브이케어사업과 푸드플랜 사업을 통해 종합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⑥ 여주 전역을 조화롭고, 균형있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여주~원주간 철도건설사업이 단선에서 복선으로 변경 추진되면서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여부를 재조사하기로 한 데 따라 여주시도 관련 사업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여주와 능서역세권을 개발하

고 가남읍, 점동면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종합체육센터와 체육공원,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등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해 주민 편의를 확대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으로 서 선전포 향후 5년간 45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 여주통합정수장 증설, 오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오학~천송 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⑦ 문화와 역사의 도시 여주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여주시가 운영하는 첫 미술관인 ‘아트뮤지엄 러’를 최대한 활용, 프리미엄 아울렛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주어사지, 최시형 묘소 주변 정비와 혼암리 선사유적지 발굴을 이어가겠습니다. 여주만의 특색 있는 테마길 조성을 위한 여주시 근현대사 스토리텔링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⑧ 시민과 함께 걸어가는 공감 여주를 지속해 만들어 가겠습니다. 당장 1월부터 여주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안다미로’를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중학생까지만 지원하던 무상 교복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는 경기도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지역회파와 연계해 지역경제 선순환도 함께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박2일 마을회관 소통투어를 이어가며 지역 현안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겠습니다. ‘행복 여주’란 농촌에 살아도 빈곤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고독하지 않는 건강한 공동체가 살아있는 여주라고 생각합니다. 여주라는 공간 내에서 서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토박이든, 외지인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사회적 약자든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고, 소통할 때 행복 여주는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여주의 모든 생명이 행복한 여주시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행복지수 높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플선 여주시의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 의장 유플선, 경자년 새해를 맞아 12만 여주시민 여러분께 큰절을 올립니다.

기해년을 보내고 쥐의 해 경자년을 맞았습니다. 쥐는 다복과 근검절약, 부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살기 좋은 세상, 행복한 인생, 신바람 나는 하루하루를 꿈꿉니다. 인류의 역사는 더 많은 자유, 더 풍부한 경제, 더 평등한 사회를 향해 전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려움

을 이겨 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금방 달라지는 건 없을 것입니다. 지난 해의 어려운 문제들이 일거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올해대로 또 다른 문제들이 닥쳐올 지도 모릅니다. 올해에도 우리 앞에는 많은 난관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남북간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도 아직은 험준한 여정이고, 참채된 세계경제 회복도 시간이 걸릴 것이며,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적 현실도 근본적으로 개선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하고 쉬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창게 나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과를 위해 국민 모두가 인내심을 가지고 단합해야 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지혜를 모아 타개해 나가야 하며,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평등도 한걸음씩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이 고르게 나가고, 불평등이 개선되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여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성장과 침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주의 도심을 재정비하고, 남한강 주변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농촌을 역동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여주의 소중한 문화, 역사, 자연 자원을 결합하여 여주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함께 나누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시스템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이 성공해야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사회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 농민수당 조례 등 지난 해 난항을 겪으며 통과된 보편복지 실현을 위한 조례들이 올 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이것을 단초로 하여 시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임을 증명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많이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여주시의 의정이 지방자치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분담의 원칙으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새롭게 개선해 나가면서, 시민을 위해 열린 의회, 배려와 상생이 꽃피는 협치의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주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주시민 모두가 우리 여주시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의정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지도편달과 참여를 열린 마음으로 항상 기다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미래비전 7TH 양평’의 초석



정동군 양평군수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양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1천5백여 양평군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도약과 성취를 안겨줄 희망의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양평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평의 미래 성장장 동력이 될 씨앗들을 심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85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500억원의 시상금과 상사업비를 확보했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20억원, 6.1% 증액된 2,10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미래비전 7TH 양평’을 초석으로 양평만의 특성을 살린 구체적인 로드맵을 실행하여 우리가 심은 희망의 씨앗들을 싹 틔우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관심과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앞서 나가는 과감한 개혁정신과 도전정신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우리 양평이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한마음으로 화합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0년은 민선 7기의 본격적인 도약을 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 아침, 저는 큰 기대와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 선상에 선 선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을 당부 드리며, 올 한해 그라갈 군정의 큰 그림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 중심의,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정한 군정 운영으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양평의 장기적인 비전과 핵심가치를

담은 ‘미래비전 7TH 양평’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로드맵을 구축해 새로운 환경변화와 시대 정신에 부합한 핵심전략과 중점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입니다. 군민 대토론회, 우리동네 원탁회의, 군민다자יד단 및 국민생각함, 소통·공감 ‘톡톡! 카페’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군정정책자문단, 민관협치협의회, 주민참여예산제 등 군민이 주도하고 군민이 원하는 맞춤형 행정으로 군민 참여 행정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공공갈등위원회와 공공갈등포럼, 마을갈등 자율조정 전문가 양성 등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와 역량 강화를 통해 갈등의 사전 예방 및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군정을 운영하는 공직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니다. 인사시스템 개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 지원 등 공직자의 높은 도덕성과 월등한 능력이 우리 군의 경쟁력이라는 각오로 군민들의 신뢰를 다져가겠습니다.

둘째, 지역산업의 성장을 도모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신성장 미래 동력을 육성하겠습니다. 양평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양평에서 만족하며 살아가 수 있도록 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 온라인 스토어 창업 지원, 창업가 육성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평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과 청년 일터 건립으로 맞춤형 취업과 창업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을 위해 통합일자리센터, 중형고용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구인·구직 트라이앵글 연계 프로젝트,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쿼 워드 미, 신종면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장 유통구조와 소비 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객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전통시장이 특화시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상인과 함께 고민하며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 종사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망 중소기업 유치, 양동산업단지 조성, 드론택터링공장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양평의 근간을 이루는 친환경농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친환경인증농가를 확대하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지원하였으며, 스마트팜 육성,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명품소득작물 집중 육성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평리 전술훈련장 환경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안전한 도시 양평, 품격 있는 교육·복지 도시 양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은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 종합상황실 고도화, 양서 119 안전센터 설립, 단월·청은 119 통합지역대 신설 등 신속 정확한 초동 대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양평형 혁신지구 정착, 청소년 정책기관협업체계 구축, 청소년 공작읍선사업으로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망 중소기업 유치, 양동산업단지 조성, 드론택터링공장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다하

배달강화 확대,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센터 운영, 도서관화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인이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요양원 증축, 찾아가는 희망배달마차 운영, 복지순환버스 증차, 육아나눔터 확충 및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양서군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명에사회복지공무원, 행복마을 청년복지 매니저 등 새로운 복지시책 발굴로 빈틈없이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삼산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양평에코힐링센터 건강관리 서부센터를 개소하고, 어린이 건강놀이터 조성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군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문화예술의 도시, 체류형 관광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는 특화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군이 보유한 문화예술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도시 지정사업에 응모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문화환경을 기획하고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원은 국가정원에 등록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하고, 구둔 아트스테이션 개발, Y-클라이밍 파크 조성,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넓혀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군민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그려는 그림은 분명히 큰 꿈일 것입니다.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분명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자력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하나하나 희망을 설계하고 현실로 이뤄봅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보천리(牛步千里)’라는 말을 되새기며 우직한 걸음으로 한걸음 한걸음 꿈을 향해 성실히 나아가간다면 그 여정 끝에는 희망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양평의 변화와 발전을 향한 항해에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꼭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현 안산단원갑 예비후보자 포부 제시

“풍부한 의정,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안산발전 선도할 것”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김현 안산단원갑 예비후보(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백운동, 신길동, 원곡동)가 풍부한 의정경험과 중앙 정치권 인맥을 바탕으로 안산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는 포부를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했고 (1988년 제41인사영입시 학생대표), 노무현 대통령 청

와대에서 최연소, 최장수, 최초 여성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함께 했다. 아울러 이해찬 당 대표의 대변인, 원내부대표에 이어 추미애 대표 시절 대변인, 이해찬 당 대표의 사무부총장(현) 등을 거치며 당에 기여도와 공헌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제19대 국회



의원 당시 2012년에는 민주통합당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상에 이어 2013년 안행위 3정보위, 운영위 3개 상임위에서 경찰, 국정원,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파헤치고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우수국회의원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 지난 2016년 2월 23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당시 야당 의원 38명 의원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12번째 주자로 나서 4시간 17분 동안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한 발언을 하며, 세계 최장기록(192시간 27분)을 달성하는데 큰 힘을 보탰다. 한편 김현 예비후보는 “그동안 쌓은 국정운영 경험과 공보분야에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안산 발전을 위해 뛰겠다”며 “안산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김현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필영 기자

제3기 마을세무사 위촉장 수여

구리시.취약계층·영세사업자 대상 무상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구리시는 31일 시청 민원상담실에서 ‘제3기 구리시 마을세무사 위촉식’을 갖고 마을세무사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하는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아주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16년부터 제1기 마을세무사 운영을 시작으로 이번 제3기 마을세무사 2인을 위촉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년간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마을세무사 위촉을 계기로 앞으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 어려운 시민들이 더 쉽

고 편리하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아디든 찾아가는 맞춤형 세무상담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방문권(이음세무회계사무소 (02-745-0345), 박성현(박성현세무회계사무소 (031-516-8255)) 세무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면 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마을세무사를 직접 만나 상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031-550-21 82)로 문의하면 된다. ■손복선 기자

신년사

안산시민의 저력을 믿고, 씩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2019년은 정치·경제적으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아쉬움보다는 보람이 컸던 한해였습니다.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시민들과의 협치를

명문화한 협치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안산시의 힘찬 출발을 알렸고, 스마트 선도 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다가를 4차 산업혁명의 중심도시로써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낸 역동적인 한 해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기적을 바라고, 현명한 사람은 기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어려움 속에서도 확인했던 우리 안

산시민의 저력을 믿고, 또다시 씩없이 달려가고자 합니다. 민선7기 3년차를 맞은 안산시는, 첫째, 서해안 시대 교통의 요충지로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난해 신안산을 착공했고 올해 수인선이 개통됩니다. GTX-C 노선 연장까지 이뤄지면 안산의 도시성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둘째, 선도적인 복지정책으로 '명품 복지도시'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전국 최초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시

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온 안산시는 올해부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과 본격적인 지역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모두가 살맛나는 삶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골목상권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것입니다. 지난해 발행한 안산화폐 '나온'은 전국 최대 가맹점 확보를 달성하는 등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품 상권 육성과 상인회 자생력 강화사업 등을 추진해 열여

불은 서민경제를 녹일 것입니다. 넷째, 우리 안산시는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정보화시대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1인 여성가구 대상 범죄를 예방할 것이며,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상·장하, 신길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인구증가를 위한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2020년 안산시정은 안산시의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가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와 2천여 공직자 모두는 새해에도 더욱 겸손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누구에게나 행복을 줄 수 있는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시정의 동반자로서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열어가는 데, 주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새해,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천시민의 대표일꾼... 올해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엄태준 이천시장

존경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천시 공직자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희망찬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천시민의 대표일꾼 엄태준! 새해인사 드립니다. 경자년은 흰쥐의 해로 쥐는 다산과 풍요,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서

서로 나누며 함께 잘 사는 새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사정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여러 걱정거리로 작년 한 해 얼마나 심려가 크셨습니까? 혹여 시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다치시는 일은 없으셨는지 염려가 됩니다.
23만 시민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스스로 만족스러운 한 해였는지 시민 여러분의 짐은 덜어드리고 작은 도움이나마 드렸는지 되돌아봅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 주셨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이천시 공직

자는 시민들의 관심과 불편은 덜어드리고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단단한 다짐과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을 평화롭고 편안한 일상의 삶이 있는 곳으로 꼭 만들고 현재가 만족스럽고 내일이 기대되는 멋진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1년간 과라솔독, 현답시장실 등 여러 형태로 시민들을 찾아뵈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 발전과 행정에 대한 건의와 함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호소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잘 모아 주셨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이천시 공직

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수상과 지방세 정운영평가, 재정분석평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고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등의 대외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일죽~대포 간 지방도329호선 확장포장과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6공구가 설계용역을 착수하는 등 오랜 숙제였던 지역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사고와 신속한 실천으로 차곡차곡 풀어내고 있습니다.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국·도비 98억 원을 확보하였고 주차편의를 위한 남천상가와 공설운동장 주차시설은 올해 착공을 하며, 장호원 버스터미널 문제와 설봉근린공원 일몰제 문제 또한 예산을 투입해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민사회와 공직사회가 합심하여 일궈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도 공무원들과 '정겨운 답소'라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만, 소통을 통해 시민사회와 공직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잘 해내고 협업을 잘 이뤄내, 기쁜 소식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실적 부진 등 경기불황의 여파로 내년 우리시 세입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2020년 본예산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30%가 감소한 2,940억 원을 예상했고 전체예산은 9,488억 원(전년 대비 695억 원(△6.8%) 감소)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재정을 소중하게, 시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전시장 임기 만료점을 지나는데 해로 그동안 계획을 세웠던 공약과 주요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삶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돕고 화합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을, 동네가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이천시가 지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읍면동장의 권한을 확대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요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기가 넘치고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문화와 휴식 등 여유와 쉼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 이천에서의 삶이 하루하루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행정 프레임을 전환하여 진정 시민이 편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삶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필요에 딱 맞는 맞춤형정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균형과 조화의 원리를 잘 적용해 어긋남

이 없도록 원활히 하고 부득이 발생될 수 있는 공공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적의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의 화두를 去彼取此(거과취차)로 정했습니다.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천시장으로서 '먼 미래에 이천에 살게 될 시민의 행복보다 지금 이천에 살고 있는 시민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새기며, 현재 이천시민의 행복한 삶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시민사회도 화해와 관용의 덕목으로 화합하여 현재와 미래를 위한 희망비전 정책을 함께 만들고 실천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23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는 새해가 무척 기대 됩니다. 이천시민의 대표일꾼으로 올해에도 변함없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1월 1일 새해아침

수원특례시와 자치분권 실현에 힘쏟겠습니다



조명자 수원시의회의장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시작이 주는 설렘이 반가운 새해가 드디어 밝아왔습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특하나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흰 쥐'의 해입니다. 우리조상들은 예로부터 쥐를 다산과 풍요,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왔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빠르고 민첩하게 적응해 나가는

동물인 쥐처럼 2020년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과거의 아쉬움들은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새해에는 희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새로운 한 해의 첫 출발을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제1대 수원시의회의장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제·개정 등의 입법 활동부터 다양한 정책토론회 및 연구활동, 현장방문을 통한 생활정치 실현으로 시민의 목소리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주민편의라는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게 된 수원-용인·수원-화성 행정구역 경계 조정, 군소읍 폐하지역 주민에게 보상의 길을 열어준 군소읍법 통과 등 오랜 현안이 해결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

다.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의는 2020년에도 한걸음 한걸음 바르고 정확하게 시민여러분과 함께 걸어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일지리를 재창출하는 등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일부에서는 몇 가지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실망을 드리 바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던 시민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려 시의회 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신뢰를 회복하고자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사관행성(思官行省, 모든 일을 생각하라고 판단하며, 반성하면서 행동하라)을 가슴에 새기고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2020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작년 4월 인구 50만 돌파를 시작으로 11월에는 51만을 넘어 서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수년

내 명품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금 팽택 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고덕국제신도시 조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생활 인프라 부족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현재 진행되고 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생생 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새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동행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전반에 대하여 넓은 관행과 불필요한 규제와 벽을 허물어 특혜와 특권,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외계

층을 배려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며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릴적, 한 겨울 풍광 언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온몸의 온기가 온몸을 사르르 녹여 편안해 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랫목의 밤을 구수한 청국장으로 비벼 먹으면 별다른 반찬이 없어도 더 없이 행복을 느꼈곤 했습니다.
올 한해 우리의 이웃과 가정이 온돌방 속 청국장과 같이 따뜻하고 구수한 삶의 여유를 가지고 건강한 웃음이 넘쳐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원화성문화제 ‘2020~2021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

수원시를 대표하는 축제 ‘수원화성문화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0~2021년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2018년·2019년도 문화관광축제에서 각각 유망 축제·우수 축제로 선정됐던 ‘수원화성문화제’는 3년 연속 선정됨으로써 우수성을 높이 인정받았다. 올해 평가에서 수원화성문화제는 ▲축제의 기획·콘텐츠 우수성 ▲축제 홍보, 시설·인적 인프라 등 운영의 우수성 ▲축제 지속가능성 ▲축제의 효과성(관광활성화 기여도) 등 모든 항목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는 지난 10월 3~6일 4일 동안 화성행궁, 행궁광장 등 수원화성 일원에서 ‘인인화락(人人和樂, 여민동락의 길)’을 주제로 열렸다. 이

문화제는 앞으로 2년 동안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하는 국내·외 홍보·마케팅과 축제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국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김기배 수원시 관광과장은 “수원화성문화제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특색 있는 대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2020년 10월에 열리는 제57회 수원화성문화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995년부터 전국 지역축제 중 우수한 축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대표·최우수·우수 축제 등을 구분해 지정했지만 올해부터 등급 구분 없이 3개 축제를 선정해 지원한다. ■김진태 기자

광명 ‘구로차랑기지 이전반대’ 결의 다져
박승원 시장 “광명의 발전을 해치는 사업”

2020년 경자년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일 오전 9시 구로차랑기지가전 예정지인 발일마을에서 ‘구로차랑기지 이전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예비후보자, 구로차랑기지 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위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차랑기지가전사업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경과보고, 국회의원예비후보자의 반대입장 표명에 이어 참석자 전원이 함께 구로차랑기지 이전반대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도덕산 정상에서 신년 해맞이 행사를 마친 후 구로차랑

기지 이전지 인근의 발일마을로 이동하여 진행됐으며, 특히 4월 15일에 개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과 시의회, 도의회 등 지역 정치인과 공동대책위원회, 발일마을 주민, 시민 등 민·관·정이 함께 행사에 참여해 힘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였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해 첫날 첫 번째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광명의 미래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다. 구로차랑기지가전은 광명시의 중심부인 산림축을 훼손하고 광명의 발전을 해치는 사업이다. 구로차랑기지 이전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박승원 광명시장(좌측)이 광명 구로차랑기지 이전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들의 힘을 모아 철회되는 그날까지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차랑기지 이전 철회를 기원

했다. 또한 기필코 막아내겠다는 뜻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모두의 힘이 결집된 만큼 구로차랑기지 광명에서 사업은 끝내 철회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덕우 기자

2020년 인천시민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이사랑꿈터 30개소 설치·어르신 위한 효(孝)드림 복지카드 도입·청년 월세비용 지원 등 삶의 질 향상 위한 사업·제도 추진

경자년 새해 인천시는 무엇이 달라질까? 인천광역시는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만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0년 새로운 사업과 제도를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준공되는 공공시설, 법령개정 등에 따라 시민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들을 모아서 책자(‘2020년 인천시민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를 발간하고 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문화분야(4건)’에서는 △동물보호의식을 높이고 동물과 공존하는 인천시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 동반 참여형 축제인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상반기중 개최될 예정이다.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1인당 8만원에서 9만원으로 확대된다.

‘여성·보육·가족분야(23건)’에서는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며, △공동돌봄을 위한 아이사랑꿈터가 2020년까지 30개소 설치된다. △공공 출산·육아지원 시설이 함께 갖춰진 혁신육아 복합센터도 전국 최초로 건립된다. 그 밖에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사업,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인천형 작은 결혼식 운영 등 양성평등 구현,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 인천실현을 위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를 위해 2020년에 ‘복지·노인·보건·의료분야(16건)’에 여러 제도가 시행된다. △어르신을 위한 효(孝)드림 복지카드가 도입된다. 75세 이상 사회적 보호계층 어르신들에게 연간 8만원을 지원하여 건강, 식사, 위생, 여가 등 복지 혜택을 지원한다. △국

비 지원만으로 부족했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시와 군·구가 일일2시간 추가 지원한다. △시각장애 인복지관도 증축된다. △증증장애인 시민옹호 지원 사업도 시행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사는 지역사회로 한걸음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경제·산업 분야(16건)’에서도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다. △인천 청년에게 인천의 우수기업 산 업협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 및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취·창업 재직 청년에게 월 10만원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반기 중 시행한다. △지역 청년활동 공간인 ‘유유기지’ 2호점을 부평에 개소해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의 청년들을 응원한다.

‘생활·환경·분야(17건)’에서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정책사업을

발굴·시행하는 민관공동위원회가 운영되며, △시 관할 기관이나 시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시민 인권보호관도 운영한다. 365일 안전 안심도시를 위해 △안심집 안심인(in) 서비스가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되며, △피씨(PC)를 통해서만 확인가능 했던 수질정보를 2020년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정수장 외에 배수지에 대한 수질정보까지 확인가능하다. △국제119안전센터도 송도동에 2020년 10월 준공예정이다.

또한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입 생활폐기물을 10% 감축하는 반입총량제가 실시된다. 인천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철저한 재활용과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량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교통·항만·수산분야(8건)’에서는 교통 편의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이원화되어 운영하던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합 개장하여 이용객 혼선을 예방하고, 현대식 신축 건물로 편의성이 개선된다. △교통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운진군의 경우 수요응답형 버스로 운영되며,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강화군은 대체 및 신규 버스가 투입되어 주민들의 이동이 편리해진다. △인천도시철도 1.2호선에 전동차 객실내 공기질 개선장치를 설치하여 쾌적한 객실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시계획·도시개발분야(4건)’에서는 △신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주거정비지수(재개발), 안전진단(재건축) 결과에 따라 추진된다. 또한 △강화해안 순환도로 개통, △부평동~장도개간

연결도로 개통, △서구 서곶로 도로 확장 준공으로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고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이러한 사항들을 포함해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 달라지는 제도,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 도로 개통 등 인천시민이 꼭 알아야 할 핵심사항을 7개 분야 88개 사업으로 정리해 ‘2020년 인천시민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책자는 △교육·문화(4건) △여성·보육·가족(23건) △복지·노인·보건·의료(16건) △일자리·경제·산업(16건) △생활·환경·안전(17건) △교통·항만·수산(8건) △도시계획·도시개발(4건)의 내용을 담고 있다.

책의 구성은 핵심 내용을 먼저 수

록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큐앤에이(Q&A)방식’으로 작성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서 문의할 수 있도록 ‘더 알아보기’를 추가했다.

특히 분야별 주요 시책은 친숙한 그림, 이미지, 리플릿 형식으로 표현되어 시민들이 보다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자과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는 1월중에 군·구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인수 정책기획관은 “2020년에도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다양한 통로를 열어 300만 시민 모두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시민 중심의 시장 실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용환 기자

금연·다이어트... ‘작심삼일’ 넘어 새해 목표 이룬다

인천시, 오랫동안 지속·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다양한 정보 소개

“새해에는 담배 끊고, 다이어트 성공해야지. 미뤘었던 자격증, 외국어 공부도 꼭 해야지.” 새해가 다가오면 마음속에 새로운 목표와 열정이 솟는다. 하지만 매년 작심삼일로 끝나기 십상이다. 심한 경우 자포자기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인천시가 새해맞이 결심을 오랫동안 지속,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다양한 정보를 소개한다. 올해는 다짐이 열흘을 못 넘겼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목표치를 조금 낮춰서라도 도전, 또 도전해 새해 첫날에 세운 목표를 꼭 이뤄보자.

△올해는 몸짱 변신 성공! 마린톤 목표로 열정 수혈해볼까=운동과 다이어트는 매년 단골로 등장하는 새해 다짐이다. 건강하고 보기 좋은 몸은 남녀노소 모두의 바람이다.

생활 속에서 걷기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천시의 걷기 어플 ‘워크온’은 헬린지에 도전하

고, 커뮤니티에 가입해 다른 사람과 함께 의지를 불태우고, 선물 등도 받을 수 있는 특폭한 도우미다. 본인의 걸음수, 일일 활동기록, 걷기패턴 등을 기록하고 보여줘 게으름과 추운 날씨로 의지가 꺾일 때 계속 밀고 나갈 동기를 부여해준다. 뿐만 아니라 인천의 55개 걷기 좋은 코스가 등록돼 있으며, 헬린지에 성공하면 텀블러, 황사마스크, 마스크 등 선물도 받기 일석이조다.

새벽 운동한다는 마음으로 ‘내집 앞 눈 슬기’에 동참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천시는 제설작업 시작지대인 보도, 이면도로, 뒷골목에 쌓인 눈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쓸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유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영국 속담처럼, 덜 먹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 외에 왕도가 없는 만큼 내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마을 청소에 앞장서보자.

마라톤을 목표로 하는 것도 열정

을 지속 수혈하기에 제격이다. 인천시는 매년 초여름에는 ‘인천사랑실천 걷기행사’, ‘한마음 걷기행사’를, 가을에는 ‘생명사랑발길걷기’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걷기행사를 연다. 또 인천에서는 인천국제해프마라톤, 송도국제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이처럼 다양한 마라톤 코스와 걷기대회도 있는 만큼 누구나 본인의 체력에 맞는 목표에 도전할 수 있다. 부상 없이 완주하기 위해서는 미리 기초 체력을 다지고, 꾸준한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성공할 것이다.

△금연 성공해 건강 챙기고 선물도 받고=인천시의 모든 군·구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한다. 일일 응원랑, 니코틴 의존도 평가, 폐활량 측정 등을 해주고, 금연패치와 금연 껌 등 금연보조제 무료 지원 및 금단증상 대처법, 흡연유혹 대처전략 찾기 등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금연클리닉을 방문해 금연상담

카드를 작성하면, 6개월간 1:1 전문상담·관리가 이뤄지며, 금연에 성공하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음주 관리는 인천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활 속 중독을 극복하는 치료 뿐 아니라, 마라톤 참여 등 자신감을 높여주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

△인생에 썸표가 되는 ‘나만의 취미 찾기’=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꼭 썸표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마다 썸의 방식이 다른 만큼 자신이 원하고, 힐링이 되는 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전과 경험이 필요하다. 올해는 막연히 생각만 했던 것들에 도전하고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보면 어떨까.

우선 집 주변의 평생교육센터와 도서관을 방문해보자. 놀라울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의 숨은 고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이다. 도서관에서도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평생학습관에서는 공인중개사, 바리스타 자격증은 물론

가구만들기, 글쓰기 등 수십개의 취미, 자격증 교육과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활동이 이뤄진다. 다양한 취미에 도전하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찾는것도 평생의 자산이 될 것.

외국어에 도전하고 싶다면, 평생교육센터 또는 주민센터 내에 마련된 ‘열린외국어센터’의 문을 두드려보자. 초등학교생들이 즐겁게 영어놀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물론 원어민과 함께하는 성인 회화 프로그램도 있다.

매 분기 인터넷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으니, 결심했으면 바로 신청하고 시작할 것을 권한다.

나만의 텃밭을 갖고 싶다면 구에서 운영하는 텃밭 분양에 도전해보자. 매년 봄 신청을 받아, 공개 추첨해 텃밭을 분양하며 11월까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매년 봄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상자텃밭을 분양한다. 개당 5,000원이면 집 안에 자연을 들일 수 있다. 농사의 기술을 익히기엔 작을 수 있지만, 생명을 키워 수확을 얻는 즐거움은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배용환 기자

서구,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주민불편해소 총력

서구는 서구청 제2청사와 청라3동 6단지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신규 설치하고,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라4단지 지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로 그 동안 동행정복지센터와 거리가 멀어 불편을 겪던 주변 주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 토지, 지적, 건축, 차량, 보건복지, 지방세, 국제증명, 교육 등(가족관계, 등기부등본 등 제외)으로 민원창구보다 최대 50% 감면된 수수료로 신분증 없이 지문인식만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음성안내 및 접차카페드, 화면확대 터치버튼 제공, 휠체어 이용을 감안한 기기조작 기능 등을 제공

함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운영으로 주변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발급기를 수시 점검·관리하고, 이용 실태분석을 통해 민원불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민원서류 발급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배용환 기자

강화군, 2020년 건설기획단 ‘첫발’ 공무원 직접 자체 설계... 예산 절감 기여

강화군이 2일부터 2월14일까지 ‘2020년도 강화군 건설기획단’을 운영한다.

건설기획단은 매년 강화군 소속 시설(토목)직 공무원들이 소규모 주민편익 건설사업에 대해 직접 자체 설계를 시행함에 따라 설계용역비를 절감하고, 빠른 착공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누구보다도 관내 현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실시해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완성도 및 주민들의 만족감이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이번 기획단은 공무원 7개반 39명이 건설사업 221건, 공사비 약 145억원에 대해 자체 측량·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며, 예산절감 효과는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도에 이어 약 12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건설기획단 운영을 통해 설계된 모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편의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예산신속집행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가 정책에도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인천시, 상생유통지원센터 ‘더담지’ 개소

인천광역시에는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더담지가 구립 30일 제물포역사 1층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2018년 행정안전부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상생유통지원센터는 ‘더담지’라는 이름으로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더담지는 1차적으로 상품을 담는다는 의미와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비자의 상생을 담아 궁극적으로 사회적가치를 담아내겠다 뜻의 이름이다.

더담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전시판매장 및 교육체험장과 카페 더담지로 운영되고, 현재, 50여개의 기업이 제품판매 및 체험기업으로 입점했다. 더담지는 정기적으로 플래마켓을 여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개척하여 참여기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며 상생을 도모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지역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배용환 기자

남동구, 2019 지역안전지수 행안부 우수기관 표창 수상 다양한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해 구민 안전 신뢰도 높여

남동구가 ‘2019 지역안전지수 개선 행정안전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역안전지수는 화재, 교통,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7개 분야에 대한 전국 지자체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통계수치다.

구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과 재

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종 특수 안전시책을 추진한 노력과 의지가 높게 평가돼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구는 지역안전지수 등급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재난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구민 안전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주목 받고 있는 사업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 5천215명에게 보급한 스쿨백 안전커버와 골든타임(Golden time)내 자살자를 구조할 수

있는 게이트 오프너를 구축한 사업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안전지수 모든 분야에 대한 다양한 개선사업을 시행해,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전한 남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용환 기자

홍성군, 김좌진 장군 나라사랑 정신 선양

청산리 대첩 100주년 백야 김좌진 장군 나라사랑 선양의 해 준비쫐 발족

홍성군은 1일 백월산 정사에서 김석환 홍성군수를 비롯한 500여 명의 군민이 함께한 가운데 새해 첫 행보로 백월산 영신고천대제와 함께 백야 김좌진 장군 나라사랑 선양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

군에 따르면, 오전 6시30분 홍성군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영신 고천대제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이어 백야 김좌진장군 청산리 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 백야 김좌진 장군 나라사랑 선양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

청산리 전투는 전 국민에 회광을 주며 민족의 역사를 잊게 만든 역사적 사건으로, 홍성군은 2020년을 '청산리대첩 100주년 기념 백야 김좌진 장군 나라사랑 선양의 해'로 정하고 대한민국 독립군 역사 상 최고의 전과를 올린 청

산리 전투의 영웅 백야 김좌진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대내·외에 알리고 장군의 출생지인 충청의 고장 홍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특히, 국가적 행사로의 격상을 위해 충남도와 정책협약을 통해 홍성군을 대한민국 항일운동의 성지로 육성하게 되며, 청산리 전투 100주년 열린음악회를 비롯해 전국체육대회 유치와 항일의 의지와 나라사랑을 알리는 청산리 전투 연극과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청산리 전투의 의의와 가치를 재조명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군 내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를 비롯한 각종 기관단체들과 함께 백야 김좌진 장군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중국 해림시를 비롯한 독립운동 현장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성군은 1일 백월산 정사에서 김석환 홍성군수를 비롯한 500여 명의 군민이 함께한 가운데 새해 첫 행보로 백월산 영신고천대제와 함께 '2020년 청산리 대첩 100주년 기념 백야 김좌진 장군 나라사랑 선양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편, 홍성군은 선포식 이후 홍주 의사총, 충령사 참배에 이어 올내는 갈산면 소재 김좌진 장군 사당 참배

를 추가로 진행하며 선양사업을 위한 홍성군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 ■김영래 기자

청양소방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화재 예방 안전 교육

남양면 홍산1리 주민 대상… '불 나면 대피 먼저'·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등 교육

청양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지난해 12월31일 화재없는 안전마을인 남양면 홍산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안전 교육을 가졌다.

이 날 교육은 지정정책 중 '불 나면 대피 먼저',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과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법을 통한 초기 대응법, 심폐소생

술 등 응급 처치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농촌 지역 주택화재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자율 소방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화재 예방 및 초기 진압을 위해 집집마다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보급해 특별 관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안전의 식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마을 주민의 자율 안전의식을 확립하고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마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영래 기자

채수철 예산소방서장 취임

예산소방서는(서장 채수철) 2020년 1월1일자로 제10대 채수철 예산소방서장이 취임했다고 전했다.

채수철 소방서장은 지난 1982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공주·보령·홍성·금산소방서장·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소통하는 리더십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풍부한 현장 경험과 다양한 행정실무를 바탕으로 행정능력 및 기획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래 기자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2020년도 상반기 승진인사를 2일자로 단행했다. 상반기 승진 인사 내용은 공로 연수 대상자 10명에 대한 후임으로 4급 2명, 5급 승진 요원 10명, 6급 이하 84명 등 총 106명이다.

이번 승진 인사는 지속 가능한 논산을 위해 소통, 협력, 도전을 중심으로 적임자를 선발하는데 초점을 뒀으며, 단기 보직 부여가 아닌 그 동안의 업무 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승진 대상자를 결정했다.

특히,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공동체 동고동락을 조성하기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마을자치회 활성화, 관광산업 개발, 농촌 융·복합사업 추진, 문화·교육 기반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

논산시, 2020년 상반기 승진 인사 단행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공동체 조성 주력

임지를 선발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4급(서기관) 승진인사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적극적인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해 논산시 예산 규모를 1조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박찬해 참여예산실장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강 정책 서비스로 세심하게 시민을 돌보며, 함께 더불어 살아 가는 동고동락 논산 만들기에 기여한 김연안 보건행정과장을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 발탁했다.

5급(사무관) 승진 인사에서는 다년간의 업무성과와 공무원 근무 경력, 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사람 중심의 행복 공동체 논산 만들기에 주력할 수 있도록 유재락 행정팀장, 김관기 농정혁신 팀장, 이재수 박찬해 참여예산실장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강 정책 서비스로 세심하게 시민을 돌보며, 함께 더불어 살아 가는 동고동락 논산 만들기에 기여한 김연안 보건행정과장을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 발탁했다.

5급(사무관) 승진 인사에서는 다년간의 업무성과와 공무원 근무 경력, 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사람 중심의 행복 공동체 논산 만들기에 주력할 수 있도록 유재락 행정팀장, 김관기 농정혁신 팀장, 이재수 박찬해 참여예산실장과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강 정책 서비스로 세심하게 시민을 돌보며, 함께 더불어 살아 가는 동고동락 논산 만들기에 기여한 김연안 보건행정과장을 각각 서기관으로 승진 발탁했다.

5급 전보 인사는 △참여예산실장 홍민기 △행정지원과장 김병호 △안전준경과장 이상창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우 △100세행복과장 김진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임 △사회복지과장 김배자 △문화예술과장 성경섭 △사회적경제과장 김민영 △도시정책과장 이남해 △도시친화재생과장 홍재창 △안전도로과장 김용진 △보건행정과장 한미옥 △강경읍장 이영태 등 14명이다.

또 도로교통과는 안전도로과와 시민교통과로, 도시재생과가 도시정책과와 도시친화정책과로 분리되는 등 조직개편이 함께 이뤄질 예정으로,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승민 기자

신년사

도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2020년이 되도록 하겠다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경자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충남도정은 착실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가운데 여러 분야에서 앞장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달려 가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2020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앞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3대 위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먹거리와 발전전략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또한, 2020년은 국내·외적으로 변화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경제 상황은 위태로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정치와 외교는 보다 복잡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 내고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향해 더욱 힘 차게 달려 나가야만 합니다.

특히, 이제 민선7기가 중반부를 맞이합니다. 민선7기의 봄을 지나 여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동안 뿌린 씨앗의 싹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충남도정에 박차를 가할 시기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위기 앞에서 도민 행복과 미래 성장 전략 마련에 더욱 힘차게 나서겠습니다. 충남의 장기과제를 더욱 세밀하게 살피면서 미래 10년을 좌우할 전략과제 추진에 전념하겠습니다. 세계 해양 신 산업은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도는 '해양 신 산업의 중심 충청남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 10만개, 기업 1000개 육성, 생산 유발 25조원, 관광객 연 3000만명 등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 복원, 한국형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등이 주요 추진 전략입니다.

가시적인 도정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정의 연속성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8대 핵심 과제는 심화,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2020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 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원만히 성취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서산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구역 집중 단속

서산시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을 시민들에게 알려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210개소의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 구역 적색 노면 표시 공사를 완료했다고 지난해 12월31일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거나 직접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

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는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며 "소화전 뿐만 아니라,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에 불법 주·정차 시에도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남진 기자

논산여중, 언어문화 심포지엄 개최

오인환 충남도의원·교사 2명·학생대표 7명 등 의제 발표

논산여중(학교장 박병동)은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지난해 12월31일 개최했다.

'사람의 향기는 그 사람의 말에서 나온다'를 슬로건으로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 학부모가 함께 참여했다. 이 날 토론하는 학생회(회장 우수영)가 주관해 육설과 뒷담화를 주제로 전교생이 참가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홍성소방서

겨울철 축사화재 예방 간담회

홍성소방서(서장 유현근)는 지난해 12월30일 홍성군 축산화관에서 축산업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겨울철 축사화재 예방 간담회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축사화재에 취약한 동절기를 대비해 화재 경각심을 고취하고, 축산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화재 저감을 위한 안전 대책을 추진했다.

■김영래 기자

2019 중앙일보 건강기능식품대상 수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력추적

우수제조관리기준 GMP

식품의약품안전처

남자를 위한 활력 충전! 울트라포맨

5중 복합 건강기능식품

아연

아연은 체내 200개 이상 효소의 구성성분으로 대사과정이나 반응조절에 관여하며 RNA/DNA와 같은 핵산의 합성에 관여하므로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관여하고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세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쏘팔메토

쏘팔메토는 대서양 해안에서 자생하는 700년 생령의 통아자수의 열매로 기름과 해충에 강하고 불에도 거의 파괴되지 않는 건강한 생령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물 원료입니다.

셀렌

셀렌은 체내 효소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글루타티온 과산화효소, Thredoxin 등의 성분으로 존재하며, 체내에서 자질의 산화를 방지항산화하고 세포막을 보호합니다.

비타민B2

비타민 B2(리보플라빈)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여러가지 효소반응에 관여하는데, 특히 열량 대사에 중요하며 세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물질대사에 참여합니다.

비타민E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세포막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항산화 물질로서 활성산소를 무력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간장질환과 혈액이 필요하신 분
- 정신적인 면역기능이 필요한 남성
- 과도한 업무로 지치거나 힘든 분
- 과격한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 항산화 영양소 섭취가 필요한 분
- 활성산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분
- 건강한 신진대사를 원하시는 분
- 체력관리가 필요한 분
- 시원하게 소변이 나오지 않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
- 노화로 인해 전립선 건강이 나빠진 남성
- 메노 후 스웨이징은 노예미 드는 분
- 소변이 자주 마려우신 분
- 오래 앉아 계시는 분
- 전립선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분

쏘팔메토 열매추출물 아연, 셀렌, 비타민B2

건강기능식품 500mg x 30캡슐 (15g)

쏘팔메토 열매추출물 아연, 셀렌, 비타민B2

건강기능식품 500mg x 30캡슐 (15g)

주원료 : 아연, 비타민B2, 비타민E, 쏘팔메토, 셀렌(셀레늄)
부원료 : 홍삼, 마카, 옥타코사놀, 은행잎, 산수유, 마늘유, 비수리, 오자
섭취량 : 1일 1회, 1회 1캡슐 (500mg)

주문전화 080-790-5000 온라인주문 www.arambi.kr

영광군, 2019년 공모사업 67건 선정

국·도비 997억원 확보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19년 공모사업 추진 결과, 공모 67건 선정으로 국·도비 등 외부재원 997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5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인구·일자리 분야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문화관광 및 농업 분야가 각 9건, 산림 분야 5건이 뒤를 이었다.

그 중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

형사업으로는 행정안전부 '법성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30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 지원사업(480억원)', '융합 기기용 전원 시스템 고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사업(195억원)', 해양수산부 '어촌 뉴딜 300사업(195억원)'이 있다.

특히,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해수위가 상승할 때마다 법성면 시가지로 해수가 범람해 침수 피해

를 일으키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자동차연구원 및 전라남도와 협력해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해 유지한 초소형 전기차 육성 실증 지원과 융합 기기용 전원 시스템 기반 구축사업도 영광군의 중심 전락사업인 이도빌리티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는 김준성 군수를 중심으로 군 공무원 전체가 공모

사업 중점 추진을 위해 물치고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공모 선정을 위해 실·과·소장부터 군수까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선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영광군은 공모사업 주력 방향을 2020년에도 이어 갈 것이며 단순히 성과의 양적인 증가보다는 영광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공모사업을 관리하고 신설되는 세종사무소를 활용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광양시보건소, 2019년도 영양플러스사업 만족도 ‘98.7%’

광양시보건소는 '2019년 영양플러스사업' 성과 분석 결과, 사업 만족도가 98.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양 플러스사업'은 빈혈과 저체중, 저신장 등 영양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밀도가 높은 달걀, 우유, 감자 등 보충 식품을 6~12개월 동안 매월 2회 가정으로 배달·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보건소는 올해 영양 플러스사업에 등록된 임신부 157명, 영아 119명, 유아 126명 등 총 402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1년 간 사업을 추진한 결과, 등록 대상자의 빈혈 유병률이 임신부는 67.4%에서 2.2%로, 유아는 84.2%에서 6.3%로 감소되는 등 전체 대상자의 빈혈 감소율이 93.3%로 나타나며 빈혈 개선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한 총 만족도 98.7%, 보충식품 만족도 98.4%, 영양 교육 만족도 98.8%, 특히 사업

영양 교육·보충식품 지원... 빈혈 개선효과 93.3%



광양시보건소 '2019년 영양플러스사업' 성과 분석 결과, 사업 만족도가 98.7%로 나타났다.

신뢰도가 99.3%로 높게 나타났다.

시는 2020년에도 월 1회 사업 대상자를 발굴해 영양 교육 및 개별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도 영양플러스사업" 참여를 참여를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영양플러스실로 문의하면 된다.

정선주 건강증진과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태아와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해 영양 상태가 취약한 임신부와 영·유아의 영양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올바른 식생활 관리로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영양 플러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여수시, 일자리 키오스크 구축

전남대 여수캠퍼스·청년몰·시청 민원실에 마련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지역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정보 안내 시스템(키오스크)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31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12월30일 전남대 여수캠퍼스 도서관과 청년몰, 시청 1층사 민원실에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키오스크는 가로 66cm, 세로 190cm, LED 49인치 규모로 종류별

채용, 직종별 채용, 취업 정보, 창업 정보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화면에서 종류별 채용을 누르면 일자리 맵, 여수시 채용 공고, 청년우대, 여성우대, 장애인우대, 대기업, 벤처기업, 공기업 등의 아이콘이 나온다.

구직자들은 이 곳에서 각종 모집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직종별 채용을 선택하면 경영, 보건, 건설, 교육, 농림어업 등으로 분

류된 자료를 볼 수 있고, 취업 정보에서는 자격시험 정보, 면접 가이드 등을 만날 수 있다.

창업 정보에서는 창업 절차, 창업 자금, 사업 계획서, 법률 정보, 세무 정보, 마케팅, 창업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도 배울 수 있다.

또 여수시 공직사항과 관광문화사업 담당 부서와 연계해 취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 많은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구인·구직 콘텐츠를 풍성히 채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나주시는 지난해 12월30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

나주시, WHO 고령 친화도시 가입 인증 선포식 개최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해 12월30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선포식은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 계기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10월 WHO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승인

받았다. 나주시의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회원 가입은 전남도 내 최초이자, 전국 도시 중 12번째다.

WHO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는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고령사회 정책의 국제적 정보, 정책 공유의 장이다.

시는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

크 회원 가입을 통해 전 세계 회원 국가와의 선진화된 고령사회 대응 전략·정보 공유는 물론, 노인 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날 선포식은 나주시립합창단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시청 홍보 동영상 상영, 기념사(축사), 선포문 낭독, 축하공연 등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광주시 남구, 인건비 90% 지원

'디딤돌 사업' 참여업체 모집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청년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민간 기업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디딤돌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공개 모집한다.

지난해 12월31일 남구에 따르면, 디딤돌사업은 청년 실업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 청년들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청년 고용 사업장에 인건비의 최대 90% 가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실무 경험을 통한 직무 역량 강화로, 향후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디딤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관내에 소재한 사회적 경제조직 및 출자·출연기관, 비영리단체 등이다.

다만, 현재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과 3년 이내에 2년 이상 일자리 참여 이력이 있거나 최근 참여한 일자리사업 가운데 종료된 사업이 1년 이내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하나 방문고객을 위한 단순 상담 업무나 커피점 및 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하게 손님을 맞이하거나 판매하는 업종, 건설 및 생산 현장의 단순 노무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남구는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약 20일 간 참가 사업장의 신청 접수를 받으며, 고용 안정성과 정규직 전환, 사업 성격 등 서류 심사와 직무 전문성 및 근무 환경 등 현장 심사를 거쳐 디딤돌 사업에 참여할 최종 사업장을 선정할 방침이다.

■호남본부 오광오 기자

완도군, 2020 해맞이 행사

경자년 새해 첫날 완도타워에서 '2020년 청정 완도 해맞이' 행사가 열렸다.

다도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완도의 명소, 완도타워에서 진행된 해맞이 행사에는 주민과 관광객 등 약 2000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오전 7시40분쯤, 바다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자 환희성이 터져 나왔고 저마다의 새해 소망을 적은 소망 풍선을 날린 후 일출을 감상했다.

해가 떠오르기 전, 오전 6시쯤부터는 완도타워 마당에서 청해진12전편 군고의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해양치유산업 홍보 영상과 신년 축하 영상 메시지 시청, 희망 신년 타고, 미스트롯 김소유와 팜페라 사과나무 팀의 축하 공연과 함께 순환주, 이필모 등 연예인과 함께하는 포토타임 등이 진행됐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완도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차를 제공하고, 여러 기관·단체에서 어묵과 호떡, 전복죽 등 무료로 제공하며 따뜻한 완도의 인심을 나눴다.

■김성환 기자

신년사

시민에게 희망과 힘이 되는 시정 펼쳐 나가겠다



정현복 광양시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가족 여러분!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이 빛의 도시에 우리 시 전역을 밝게 비추고, 태양에 담은 시민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4년, '힘 있는 광양 건설을 위해 일로써 승부하고 평가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청년도약회 창립을 위한 디딤돌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공개 모집했다.

특히, 시 승격 30주년이 됐던 지난해는 우리 시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이뤄 냈습니다.

2006년 착공하여 총 사업비가 2조 2천억 원이 투입된 광양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지난 12월 19일 전 구간 개통했습니다.

진주~광양 전철화 사업은 12월 18일 공사가 착공되어 2022년 상반기에는 순천과 부산을 잇는 고속열차가 우리 시에도 운행 예정입니다.

교통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풍산업단지 1단계 33만㎡가 부속단을 겪고 있는 광양항 배후단지로 확대되는 물꼬를 마련했고, 개설이 확정된 광양항~율촌산단 간 연결 교량은 광양만권 광역교통망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생활권·경제권이 확장되고, 광양항이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세풍산단~광양역 간 연결도로 개설은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광양시 가족들의 절실한 마음, 열정이 동력이 됐습니다.

변화와 성과를 이뤄내는 힘은 '시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역발전에 함께 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이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국내 실물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상화된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선제적이고 선취적인 방식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2019년은 '광양 경제 제2 도약 실현'의 기반 마련에 총력을 경주했고, 2020년은 정책의 성과들이 시민들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장의 초점을 '일자리·경제 활성화, 관광자원 집중 개발, 도시환경 재생, 시민 삶의 질 개선'에 맞추고, 시민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도 시정의 중점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성장

과 신산업 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지역의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과 산업 구조 다원화로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금속가공 열처리센터 건립과 함께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중소기업연수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망간강 상용화 실증사업은 예비타당성 경제성 평가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준공예정인 포스코케미칼 2단계 양극재 생산설비와 연계하여 세풍·황금산단에 '이차전지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광양만권 국가산단의 안전을 강화하면서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에 특화된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드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양알루미늄 공장 건립의 시너지가 지역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세풍산단~광양역 간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산업단지별 맞춤형 업종 우량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유치를 전개하겠습니다.

광양항은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배후단지 추가 개발 등 광양항 발전 전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광양본부 유치에도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관광·문화·예술도시 기반 마련으로 미래 성장가치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3대 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섬진강과 광양만을 잇는 복합문화관광벨트 구축을 구체화하겠습니다.

(가칭)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는 최근 완료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민자 유치에 힘 쓰겠습니다.

이순신 해변관광 테마거리는 4대 교량 및 해비치로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삼화섬을 중심으로 이음길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섬진강 망덕포구에는 망덕산과 배알도 수변공원을 잇는 쉼-라인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기반으로 3개 권역에 대한 광명소 개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백운산 권역은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하고 함께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 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을 추가로 착수하겠습니다.

섬진강 권역은 배알도에서 망덕포구를 잇는 해상보도교 건설과 함께 섬진강 복합형휴게소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구봉산 권역은 (가칭)광양 마린베이 조성사업의 실행 방안을 연구하고, 구봉산 관광단지는 토지 매입과 관광단지 지정을 한껏 도왔습니다.

또한, 광양 문화예술 융성의 기록제가 될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개교와 전남도립미술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 성공적 안착을 위해 예술중학교 조기 건립에 힘을 쏟고, 도립미술관은 개관에 맞춰 폐산업시설 복합문화공간도 문을 열고 K-POP 슈퍼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광양시민의 노래는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롭게 제정하겠습니다.

셋째, 도시 정주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30만 자족도시 건설의 기반을 닦겠습니다.

광영·의암, 성황·도이 도시개발지구는 공공청사, 공원, 스포츠 시설 등이 잘 어우러진 친환경 택

지로 조성하여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인사, 도이2지구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광역 교통체계 개선 효과를 흡수하고 생활권 확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유치에 노력해 온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는 상반기에 개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건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농·어촌은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수많은 공익적 기능을 가진 생명 산업, 미래산업의 산실입니다.

농·어촌의 미래가치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어촌이 도시 지역과 함께 더불어 잘살 수 있도록 생활기반 개선과 고부가가치화 촉진,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며,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읍·면 3·6·5 생활권 구축'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마을 만들기사업 등을 추진하고, 마동 와우포구 재생사업을 착공하여 포구 현대화와 해양관광레저 복합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력작목인 매실은 '광양 매실산업 제2 전성기 구현'을 위해 매실 산업의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농·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1만 5백여 가구에 공익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과 기후 변화 대응 소득과수 재배사업 등을 지원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과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소득 숲과 토종 복분자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농촌 경쟁력을 강화하고, 백운산 고로쇠는 국가중요농업 유산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중심의 상생·소통시정을 실천하고,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광양 해피데이, 원탁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6개의 SNS 채널 외에 유튜브 채널을 신규 개설하여 시민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렴도 1등급 3년 연속 달성을 위해 '일신우일신' 하는 자세로 투명한 공직문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광양시정의 최종 목적지는 시민 행복입니다."

현장에 다니다 보면 모두가 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이 행복한 삶을 꿈꾸는 우리에게 경제가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와 1400여 공직자들은 16만 광양시민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현장에 바탕을 둔 실용적 전략과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 행동'으로 시민들께 희망과 힘이 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더 활력 있고, 더 따뜻하며,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깊고 넓고 오래 가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 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2020년 새해, 뜻깊은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순천시 ‘문화도시 조성 계획’ 승인

지난해 12월3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차 문화도시 지정 받아

순천시는 2020년 문화도시 법적 지정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순천시 문화도시 조성 계획’이 지난해 12월30일자로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25개 지자체 중 순천시를 비롯한 부평구, 오산시, 강릉시, 춘천시, 공주시, 완주군, 성주군, 통영시, 제주시 등 10곳을 승인했다.

순천시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이 이번 승인으로 오는 2020년 말 확정될 문화도시 법적 지정까지 한발 더 나아가게 됐다. 2018년부터 순천시는 문화도시 법

적 지정을 위해 순천시문화도시추진협의회(위원장 신광래) 구성과 문화도시사업추진단을 발족하고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원을 품은 생태문화도시 순천’을 비전으로 하는 ‘순천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6월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순천시 문화도시 조성 계획’은 순천시가 생태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희망을 담아 ‘정원을 품은 생태문화도시 순천’을 비전으로, 원도심·신도심·농촌권역·역사문화권역 등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서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전으로 내세운 ‘생태문화도시

순천’은 문화도시 경영 체계 구축, 도시문화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발전, 지역 자생력 강화를 4대 목표로 하고 시민 거버넌스 조직, 순천형 축제 지원, 도·농 팍파티, 갈대은행, 문화귀촌사업 등 생태와 문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순천의 개성과 장점을 활용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순천시는 이번 승인으로 그 동안 문화의 거리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문화특화 도시 조성사업’을 2020년 도에는 순천시 전 지역으로 확장해 1년 간 예비사업을 추진 과정을 거쳐게 된다.

1년 간 문화도시 조성 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2020년 하반기

문화도시 지정 심의 요청을 하고, 예비사업 추진 실적에 따른 평가를 거쳐 2020년 말 최종 문화도시 법적 지정을 받게 된다.

2020년 말,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 지방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200억원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순천시 전역에서 추진하게 된다.

순천시 문화예술과 탁종수 과장은 “순천시 문화도시 조성 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2020년 예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돼 순천시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고흥군, 해외 수출 판촉행사성과 ‘가시적’

유럽에 ‘고흥유자(Yuza)’ 현지 브랜드로 수출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올해 고흥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인 해외 판촉행사를 집중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27일 두원농협(조합장 신선식)에서는 유럽 시장에 ‘고흥 유자(YUZA)’라는 현지 브랜드로 체코와 이탈리아, 터키, 인도 등에 수출길에 올랐다.

군에 따르면, 이번 유자차 수출 성과는 지난해 8월 송귀근 군수를 단장으로 한 ‘고흥 농·수산물 수출촉진단’이 유럽(체코, 이탈리아), 동남아시아(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를 방문해 고흥유자 등 농·수·특산물 홍보에 이어 지난해 10월 말 개최됐

던 ‘제1회 고흥 유자석류 축제’와 연계해 진행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따른 긍정적 결과로 보인다 고 전했다.

고흥군은 지난해 8월, 농·수산물 수출촉진단 활동으로 10여일 동안 총 690만달러(83억원)의 수출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당시 고흥군수가 직접 해외 수출 현장에 나가 성과를 거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평가 받았다.

이후 고흥유자석류 축제 기간 동안 5박6일 간의 해외 바이어 초청 행사를 통해 현지 바이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당시 고흥을 방문한 바이어 34명이 제1회 고흥 유자석류 축제 참가와 고흥 농·수·특산물 생산농가,

가공공장을 방문을 통해 유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고 전했다.

특히, 이번 두원농협에서 OEM 형태로 생산된, 유자차는 ‘고흥 유자’라는 이름의 해외 브랜드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수출 계약을 추진한 수출 바이어 원인태사내날 원시현 대표는 “지난 8월 유럽 현지에서 송귀근 군수가 직접 고흥 농·수산물 촉진 판촉행사를 개최하고, 고흥유자석류 축제에 해외 바이어 판촉행사 등이 이번 유자차 수출에 매우 큰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2020년 2월 추가 발주 예정이며 이탈리아, 벨기에, 터키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자상품을 선두로 고흥산 딸기, 파프리카 등 농·수산물도 판로·개척을 통해 수출국가 다변화 등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영택 기자

장흥군가족센터,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사업

장흥군가족센터(센터장 박혜영)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장흥군가족센터는 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17명을 대상으로 언어 발달 개별 지도와 평가 780회기(주 2회)를 진행했다. 부모 상담 685회기, 학령기아동 부

도 교육 2회기도 무료로 진행했다. 초기 면담과 사후 평가 등을 통한 신규 대상 아동을 발굴해, 15명 이상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교육은 1:1 언어 발달 서비스와 부모 상담 그리고 부모 교육을 통해 연령에 따른 언어 발달을 위한 지도 방법을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연계해 진행했다.

이 중 2명의 아동은 진전평가 결과 또래 아동들과 비슷한 발달 수준을 보여 수업이 종료됐다.

보호자와 아동이 재원 중인 각 기관에서는 이번 진전평가 결과에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장흥군가족센터는 언어 발달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사립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서비스 신청을 하지 못하는 대상 가정을 위해 다문화 관련 축제장 현장 홍보와 교육기관 홍보를 적극 실시했다.

■정규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진도수도관리단, 2019년 고객 만족도 전국 1위

한국수자원공사 진도수도관리단(단장 박소중)이 지난 2019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한 지방상수도 22개소를 대상으로 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2016년에 이어 2018~2019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 것이다.

물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진도수도관리단은 진도군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최상의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 진도군과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실시협약을 통해 진도군으로부터 지방상수도를 위·수탁 운영해 오고 있다.

진도수도관리단은 매년 ‘고객 만족 경영’ 체제를 수립,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고객 권익 보호와 고객 최우선 경영에 노력해 지방상수도 CS(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문화를 선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객 만족 CS팀 구성, 찾아가는 고객 상담회 및 워터 코디제 실시, 가정 방문을 통한 수도물 안심 확인제와 같은 고객접점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진도군 상수도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임과 동시에 진도군과 연계해 상수도 취약계층에 대



한국수자원공사 진도수도관리단이 2019년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한 지방상수도 22개소를 대상으로 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한 병물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많은 바 소임을 다 해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또한, 진도수도관리단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핵심 실행과제를 선정 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 및 관리, 수도 검침, 수질 관리, 민원업무 처리 등 효율적인 상수도 위·수탁 운영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실제 진도수도관리단을 찾는 타 지역 공무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고객 만족도 전국 1위 달성과 관련해 진도수도관리단 단장 박소중은 “이번 고객 만족도 1위 달성은 진도군민에 대한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다함께 열정을 쏟은 결과이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군민 한 분 한 분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만족 차원을 넘어 선 고객 감동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관리단 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호남본부 오광오 기자

강진군, 전화 친절도

국민 만족도 ‘우수’

전남 강진군이 ‘2019 공무원 전화 친절도 및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전화 친절도 조사는 지난해 10월18일부터 12월6일까지 진행됐으며 맞이 단계, 응대 단계, 마무리 단계, 체감 만족도 등 4개 분야 9개 세부 항목에 대해 전체 직원의 708명 중 상반기에 실시했던 직원을 제외한 346명(49%)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화 친절도는 평점 88.89점으로 지난 2018년 88.38점 보다 0.5점 향상됐으며 맞이 단계(94.12점) 점수가 가장 높고 마무리 단계가 77.79점으로 가장 낮음으로 나타났다.

국민 만족도 조사는 지난해 8월1일부터 10월30일(3개월) 인·허가 민원을 무작위 선정해 162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11개 문항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전화조사로 진행했다. 강진군은 특히 대응성(96.54점), 친절성(96.42점) 분야에서 95점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문성에서 92.8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무원 전화 친절도 평가 결과, 최우수수는 민원봉사과, 우수는 도서관, 장려는 일자리창출과, 강진읍, 보건소, 읍면민이 각각 선정됐고, 선정된 우수 부서에는 시상금으로 최우수 7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2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원재용 기획홍보실장은 “이번 공무원 전화 친절도, 국민 만족도 평가를 통해 전 직원이 고객 응대 마인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원 응대를 할 때 친절한 마음가짐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함양해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장 기자

광주시 동구, 새해 맞이

이색 시무식 가져 ‘눈길’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2일 오전 10시부터 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시무식에서 2020년 쓰레기 없는 동구 원년’을 선포하며 새해 시작을 알린다.

이 날 선포식에서는 임 청장이 직접 ‘쓰레기 없는 동구 원년’ 선포 취지를 설명하고, 직원들과 함께 장바구니 퍼포먼스를 펼친다. 이어서 오전 11시부터 전 직원과 함께 관내 일제 대청소 등을 진행한다.

동구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생활쓰레기, 음식물, 자원 재활용 등 쓰레기 배출 15% 감량을 목표로 3개 분야 19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갑수록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에 민·관이 힘을 모아 해결하고자 올해 시무식에서 이색 퍼포먼스를 선보이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혁신적 청소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본부 오광오 기자

구례군 ‘구례의 길 완주 인증제’ 시행

지리산둘레길·이순신길·섬진강길 등 100km 구간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지역 내 조성되어 있는 명품 길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하고 트레킹을 선호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구례의 길 완주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례의 길 인증제 운영 구간은 구례군 지역 내의 지리산 둘레길을 비롯해 백의종군로와 조선수군재건로 등 남도이순신길, 그리고 섬진강길로 이뤄진 3개 구간의 총 100km 거리이다.

남원시와 경계인 산동면 밤재에서 시작해 구례수목원, 운조루, 철의사 석주관까지 이어지는 지리산 둘레길 40km 구간과 산동면 산수유목지에서 구례읍에 위치한 한국압박물관, 철의사 석주관까지의 이순신길 35km 구간, 그리고 서서천교에서 섬진강 대숲길, 섬진강어류생태관을 경유하는 순환코스인 섬진강길 약

25km이다.

이들 구간 구간에는 인증 도장이 비치된 스탬프 함 21개를 설치해 놓고 있다. 인증제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구례군청 문화관광과에서 미리 인증수첩을 구입해 구간 구간을 걸으면서 스탬프(도장)를 본인 수첩에 직접 날인하면 된다.

인증수첩에 전 구간의 스탬프를 모두 날인해 완성된 수첩을 문화관광과에 제출하면 군에서 이를 확인하고 인증해 주는 방식이다.

군은 구례의 길 완주에 대한 자긍심과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지리산 둘레길 등 각 구간 완주자에게는 기념배지를, 전 구간 완주자에게는 완주인증서와 완주메달,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김종철 기자



한국철도 전남본부는 지난해 12월31일 새해 절대 안전 확보와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한 ‘2020 우리 다짐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철도 전남본부 ‘2020 우리 다짐 워크숍’

한국철도 전남본부(본부장 김양숙)는 지난해 12월31일 새해 절대안전 확보와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한 ‘2020 우리 다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는 2019년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을 맞아 한국철도 경영 방침인 안전한 철도·편리한 철도·국민의 철도·미래의 철도 실현을 위해 조직 역량을 결집하고자 시행했으며,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 공유와 절대 안전 확보 및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 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 직원은 올

해 경영 목표인 사고·장애·재해·부패 제로와 영업 손익 개선, 고객 만족도 최고 수준 달성을 다짐했으며, 특히 국민과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절대 안전 확보와 서비스 품질 제고에 모두가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절대 안전 확보 및 서비스 혁신 토론회를 통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업무 습관, 나부터 실천하는 서비스에 앞장 서 실천하기로 했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전남도, 설 대비 불법 어업 특별 단속

시군 어업지도선 14척·단속 공무원 42명 참여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수요 급증에 따른 불법 어업과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0일 간 지도·단속을 하고 특히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간 시·군과 합동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라남도 주관 합동 특별 단속에는 도와 16개 시·군의 어업지도선 14척과 단속 공무원 42명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불법 양식시설, 포획 금지 체장을 위반한 어린 물고기 채집 등 어업 질서 저해행위다. 여기에 함로를 침범하고 과잉 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유탄약품 사용 등도 중점 단속한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준법 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지도·홍보, 후 단속’ 원칙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범칙 어획물 뿐만 아니라, 불법 어구를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322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양식 164건, 연안통발 41건, 연안자망 23건, 남장 14건, 연안복합 13건, 기타 67건 등이다.

양근시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불법 어업 단속 사전 예고로 자율적 준법 조업 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오 호남본부장

보성 읍포해변 불꽃축제 ‘대성황’

지난해 12월31일 녹차수도 보성군에서 펼쳐진 보성 읍포해변 불꽃축제와 ‘해맞이 행사’에 20만여 명이 몰렸다.

특히, 2020년 보성군이 새롭게 선보인 ‘보성 읍포해변 불꽃축제’는 1일 0시를 기점으로 경자년 새해의 밝은 화려한 불꽃으로 수 놓으며 대한민국 대표 해넘이 축제로 자리잡았다.

구름관중으로 보성군은 한 때 통신대란이 일기도 했다. 보성 읍포해변

불꽃축제는 새해 카운트다운과 함께 약 1만발의 불꽃을 쏘아 올랐다.

한화그룹과 함께한 보성 읍포해변 불꽃축제는 전국 최대 규모 해넘이 불꽃쇼로 부상했으며, 이 날 축제를 찾은 관람객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불꽃축제에서 보성군은 음악, 사연, 불꽃, 공연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더불어 ‘사연 불꽃쇼’, ‘라디오 공개방송’

■박현식 기자

통정

2020년 시무식



정현복 광양시장은 2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시무식 행사를 갖는다.

2020년도 시무식



허석 순천시장은 2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시무식 행사를 갖는다.

2020년 시무식



강인규 나주시장은 2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시무식 행사를 갖는다.

2020년 시무식



권오봉 여수시장은 2일 오전 10시 여수문화홀에서 2020년 시무식 행사를 갖는다.

2020년 시무식



최형식 담양군수는 2일 오전 9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시무식을 갖는다.

2020년 시무식



김순호 구례군수는 2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시무식 행사를 갖는다.

2020년 시무식



김철우 보성군수는 2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시무식을 갖는다.

2020년 시무식



정동영 영암군수는 2일 오전 9시 군청 왕인실에서 2020년 시무식을 갖는다.

2020년 시무식



김산 무안군수는 2일 오전 9시 군청 회의실에서 2020년 시무식 행사를 갖는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더불어, 최근 480억원 규모의 해양 레저관광 거점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성군은 ‘2020 보성 블루 이코노미 선포식’을 개최하며 대한민국 블루투어의 중심에 설 것을 다짐하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도 참석했다.

보성군은 해넘이 불꽃축제에 이어, 같은 장소(읍포해변)에서 해맞이 행사를 진행해 해넘이, 해맞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됐다.

■박현식 기자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광객 31만

경제효과 512억... 지역관광 활성화 견인차 역할 ‘톡톡’

관람객 중 81.6% 외지인... 가족·친지 동반 68.4%

전반적인 행사 만족도 높아... ‘찬란한 빛의 신라’ 콘텐츠 가장 인기

4년 만에 국내에서 열린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500억원이 넘는 직·간접 경제효과를 내며 지역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이사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해 10월11일부터 11월24일까지 45일 간 열린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평가용역 결과를 12월29일 밝혔다.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평가용역을 맡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보고서를 통해 관람객(1000명) 대상 정량·정성 조사 결과와 전문가(5명) 평가, 종합평가, 경제효과 분석, 향후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세하게 담았다. 먼저, 이번 2019 경주엑스포는 행사 기간이 경주 지역 관광 비수기인 10~11월 진행돼 지역 경기와 관광산업에 산뜻한 새 바람을 불러 올 것으로 기대 모았다.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관람객은 31만1168명으로 집계됐으며 직접 경제효과는 123억7000만원으로 나타나 짧은 기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며 경제효과가 상당했다. 다양한 부가효과도 누렸다.

361명의 취업 유발효과를 기록했고 생산 유발효과 205억4000만원, 소득 유발효과 48억9000만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08억6000만원, 수입 유발효과 15억 1000만원, 세수 유발효과 10억4000만원 등 사회 간접효과는 388억4000만원이다. 이들 수치를 합치면 직·간접인 경제효과는 512억1000만원에 달한다. 전체 관람객 중 경주시민은 약 5만6000명, 타 지역에서 온 관광객은 25만4000여 명으로 4.5배에 달했고 1인당 평균 지출액은 6만39원으로 분석돼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냈음을 증명했다. 응답자별 조사 결과는 여성이 55.3%, 남성이 44.7%로 나타났으며 축제 방문자의 연령은 60대(23.2%), 40대(19.1%), 30대(16.5%) 순이었다. 거주 지역별로는 경북이 26.6%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22.4%), 대구(15.5%), 서울·경기(9.5%)가 뒤를 이었다. 방문 목적은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를 방문하기 위함이 70.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 중 60.4%가 경주엑스포에 처음 방문했다고 밝혔고, 재방문

39.6%에 비해 1.5배 가장 많은 것은 행사를 통한 외지 관광객 유입효과가 높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동반 형태를 묻는 질문엔 가족·친지 68.4%, 친구·연인 19% 등 순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방문 동기도 가족 화합이 31.7%로 가장 앞섰으며 문화 욕구 충족이 20.9%로 뒤를 이어 여행의 트렌드가 모임·단체 및 견학보다는 개인별, 가족별 여행으로 변화했음이 확인됐다. 많은 수의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화합과 문화 욕구 충족을 방문 목적으로 밝힌 만큼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추가 조성과 보완이 앞으로 경주엑스포 공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 전반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7점 만점에 5.07점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재방문 또는 타인에게 추천 의사(5.34), 내용이 재밌다(5.17), 지역 문화를 알게 됐다(5.14) 등이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프로그램 별 만족도에 대한 답변에서는 신라의 역사문화유산은 참단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한 ‘찬란한 빛의 신라’(타임리스 미디어 아트)가 7점 만점에 5.62점을 받아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렸다. 경주타워 전망층의 4면 전면 유리제 가변형 스크린을 적용해 8세기 서라벌의 모습을 보인 ‘신라천년, 미래천년’이 5.53점으로 뒤를 이었고 술거미술관에서 열린 ‘문화로 여는 미래의 길’ 전시 그 다음을 차지해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해 새롭게 선보인 콘텐츠들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했다. 전문가들은 야간 콘텐츠 도입과 이를 통한 공간 확대 및 사용, 높은 수준의 안내 서비스 등을 장점으로 꼽으며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행사”라는 평가를 남겼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이사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 열린 2019 경주엑스포는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인 행사”라며 “여러 지표를 통해 경제효과와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로 가치를 재확인한 만큼 부족한 점을 보완해 365일 힐링문화파크로 더욱 성장시켜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석 기자

경북도, 2020년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참여법인 모집

청년 채용 시 약정 임금 월 200만원 중 180만원 최대 2년 간 지원

경상북도는 ‘2020년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사업 참여를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향후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우수 농업법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는 농업에 대한 실천 경험, 자본 부족 등으로 농촌 진입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농업법인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기술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법인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모집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15일까지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적격법인에 한해 참여자

15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되며, 지원 자격은 생산 분야를 중심으로 가공 및 유통, 체험·관광 등 융·복합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물론, 향후 농산업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기술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법인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모집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15일까지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적격법인에 한해 참여자

격을 부여할 계획이며, 이후 참여 희망 청년 모집 후 법인-청년 매칭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법인으로 결정된다. 청년과 최종적으로 매칭이 성사된 법인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일로부터 최대 2년 간 약정 임금 200만원 중 90%에 해당하는 180만원(법인 부담 2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법인당 최대 2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한편, 경북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사업을 시행해 도 내 16개 농업법인을 통해 26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남형기 기자

의성형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완료

푸드테크 산업 견인 청년 5명

의성군은 의성형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지원사업의 참여자로 의성군 푸드테크 산업 성장을 견인할 5명의 청년을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1월18일부터 12월18일까지 한 달 간의 모집 기간 동안 70명(36팀)이 지원해 1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5명이 최종 선정됐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해당 사업에 선정된 참여자들은 △의성 지역 특산물로 밀키트를 구성, 온라인으로 전국에 판매하는 ‘에리아룩 팀’ △수제 만두 요리를 통해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하는 ‘안개 바른 먹거리 프로젝트 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팀’의 3팀 총 5명으로, 이 중 4명이

서울·경기·대구 등의 도시에서 의성으로 온 청년들이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들은 본인의 창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의성에서 성공적으로 창업·정착할 수 있도록 1인당 3000만원 상당의 △사업화 자금 △정착 활동비 △전담 멘토 △사업화 교육 프로그램 △경영·자문 서비스를 지원 받는다. ■황성달 기자

의성군, 작은 공원 예정지 환경 정비

의성군은 홍물로 방치된 작은 공원 예정지에 지난해 12월29일 2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대상지 마당과 주변 골목의 잡풀을 제거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빈집 대청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폐가를 활용한 작은 공원 조

성사업은 ‘의성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안쪽에 방치돼 있는 공·폐가에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다만, 지금까지 대상지는 쓰레기 무단 투기와 악취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화재나

범죄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놓여 있었다. 이번 주민활동은 내년 초로 계획된 공원 주변 담장 허물기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들이 스스로 대상지의 환경을 정비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며, 향후 작은 공원 조성 계획에도 함께 참여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작은 공원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황성달 기자

울진군,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울진군은 오는 6일까지 ‘2020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은 방학을 맞아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건전한 근로 체험을 통해 스스로 학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국 소재 대학교(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단, 현재 휴학 중인 학생이나 입학 예정자 및 사이버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은 제외된다. 선발 인원은 100명으로 군청 실·

과·소 및 읍·면 자원 및 환경 정비 업무 등 행정 보조업무를 비롯한 다양한 직장 실무 경험을 쌓게 된다. 신청 방법은 울진군 홈페이지(<http://www.ujin.go.kr>)에서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참고하거나, 군청 총무과 행정팀(054-789-6562)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형기 기자

영덕군, 2019년 지방 관리도로 정비 ‘우수 기관’



영덕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19년 지방 관리도로 정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영덕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19년 지방 관리도로 정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영덕군은 지난 2018년 태풍 ‘콩레이’와 2019년 10월 태풍 ‘미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등 어려운 환경에서 도로 정비 부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지방 관리도로 정비 평가는 경상북도에서 매년 도 내 23개 시·군 지역의 도로시설, 안전시설, 도로 환경 정비 상태 등을 평가해 최우수 기관 1개 시·군, 우수 기관 3개 시·군을 선정한다. 보편적으로 예산적 여건이 우수한 사부지역이 상을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영덕군은 2018~2019년 태풍을 거치면서 신속한 응급 복구 추진과 도로 환경 정비에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시상금 200만원을 수상했으며, 시상금은 영덕군 교육 발전기금으로 전액 기탁할 예정이다. ■남형기 기자

울진군 영해면 행복한 곳간

주민 발길 이어져

음식 나눔을 실천하며 이웃과 소통하는 ‘행복한 곳간(영덕북부집)’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12월19일부터 울진군 영해면사무소 안에 설치돼 운영을 시작한 행복한 곳간은 영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 주체가 돼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당번을 정해 기부물품을 소포장에 포장고를 채우는 일을 하고 있으며 홍보에도 앞장 서고 있다. 현재 동양비곡종합처리장, 원구청년회, 영해그린정비와 협약을 체결해 쌀, 사과, 식료품을 정기적으로 후원 받고 있다. ■남형기 기자



일터안전을 위한 첫 단추, 작업 전 안전점검으로 채우세요

한 해 산업재해 사망자 약 2천명, 재해자 9만여 명
일터에서 매일 5명이 목숨을 잃고 250명이 다치는 셈입니다.
산업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하기 전 보호구는 제대로 착용했는지? 위험장소에 안전보건표지는 부착되어 있는지?
안전교육은 실시했는지? 위험요소가 있는 공정에 안전작업절차는 마련되어 있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이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http://www.ycc.go.kr>


의장 신상균

부의장 오진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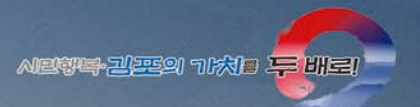
위원장 심광식
부위원장 정택진
위원 공기환
위원 유영주
위원 윤인숙
위원 정순희
위원 조진호

위원장 임정옥
부위원장 공기환
위원 나상희
위원 박종호
위원 서병완
위원 임준희
위원 정순희
위원 조진호
위원 최재란

위원장 이재식
부위원장 윤인숙
위원 심광식
위원 오진환
위원 유영주
위원 이수옥
위원 이인락
위원 정택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YANGCHEON-GU COUNCIL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가올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김포시가 열어갑니다!



애기봉에서 바라본 복덕평과 한강하구(조강)